차 례

【시】

사랑의 용출구

리 철 준

바로 여기로구나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
양덕땅의 천지개벽이 시작된 곳
2년전
우리 원수님 찾으셨던 1호용출구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에
진창길 밟으며 오시였어도
솟구치는 용출구 바라보시며
인민을 위해 큰 재부를 얻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70도가 넘는 온천수에

몸소 손을 잠그시고
물맛까지 보아주셨으랴
땅속에서 솟구치는 꿀물이라 하셨으랴

싱그러운 솔숲을 머리에 이고
온천속에 몸을 잠근 인민의 모습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온갖 피로를 가시며 문명을 즐기는
인민의 웃음소리 들으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원수님

그날의 그 용출구
그 뜨거운 샘줄기들이
오늘은 양덕의 대지를 뜨겁게 덥히며
사랑의 대하가 되여 흘러넘쳐라
인민의 복된 삶 포근히 감싸안아라

여기서 문명을 한껏 누리노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녀로소모두
행복의 웃음 한껏 터치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수님 인민사랑의 결정체여

오, 양덕땅의 새 전설이
여기 용출구에서 시작되였다면
인민대중제일주의 숭고한 뜻으로
이 땅의 천만행복을 낳는
위대한 사랑의 용출구는
우리의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심장속에 있다!

【시】

선남선녀되였소(외 2편)

리 송 일

하늘아래 첫동네 산골마을이
하늘아래 첫 무릉도원되였소
들려보소 광명성동, 베개봉동, 봇나무동…
궁궐같은 우리네 살림집들을

옛말속의 신선인들 이런 락 누렸겠소
전기온돌에 번쩍거리는 가구용품들
산뜻한 세면장과 부억에선
전기로 물 덥히고 밥을 짓소

가보소, 하늘길같은 베개봉스키장
은빛주로우에 청춘남녀들은
신통히도 하늘에서 내리는 선남, 선녀들
　갈다오

웃음 들썩 물놀이장에 들어서면
금강산 상팔담에 온것만 같다오

화려한 문화회관, 학생소년궁전…
그 어데나 들려보소
실내호케이장, 야외스케트장, 체육관…
간 곳마다 웃음꽃 만발하다오

들쭉음료공장, 감자가루생산공장, 장공장…
일터마다 드높이 울리는 증산의 동음
과학기술도서관, 초급중학교…
배움의 창가들엔 창조의 꿈 나래친다오

여기가 하늘아래 첫동네
내 고향 삼지연시라오
밤거리의 불야경은
하늘의 은하수도 무색할 정도라오

아, 하늘처럼 크나큰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속에

희한한 산간도시에 새 보금자리 편 우리들
모두가 《하늘나라》 선남, 선녀되였소

경성이 변했소

북변의 동해기슭 경성사람들
예로부터 도자기 으뜸이랬소
이제는 그 자랑만 아니라오, 우리 중평땅
희한한 온실바다, 문화주택도 제일이라오

북변이라 봄철에도 날바람 세차
남새가 귀물이던 이 땅에
한겨울에도 푸른 남새 풍성하다오
배추, 무우, 고추, 오이…

이제는 옛말이 되였소
벌방에서 시집온 새아기들
풋김치생각에 몸살나던 이야기
오늘날엔 너도나도

풋김치맛 뽐내느라 몸살이라오

싱글벙글 온실안 누비는 저 아낙네
2층문화주택 통채로 받은 삼태자엄마라오
그날부터 일욕심도 삼태자같소
그 큰 온실 세개동 혼자서 맡았다오

모두가 극성이라오 중평사람들
북변의 인민들에게도
사시장철 신선한 남새 마음껏 먹이시려
사랑의 바다 펼쳐주신
원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오

아 변했소, 경성이 변했소
자자손손 도자기로 유명하던 고장에
오늘은 바다같은 남새온실자랑!
도시도 부러워할 문화주택자랑!
나날이 새 자랑 늘어난다오

양덕땅에 넘치는 사랑의 노래

옛말에 바다속의 《룡궁》
이 땅우에 솟았는가
궁벽하던 산간마을 양덕땅에
황홀하게 펼쳐진 온천문화휴양지

걸음걸음 포장길에 뜨겁게 어려오네
돌부리길 걸으시던 원수님모습
희한한 온천장들 따스한 온탕들엔
물온도 가늠해보시던 그이 체온 스민듯

온탕속의 《친절어》들 자랑하는가
자기들 이름 원수님 지어주셨다고
닭알삶는 터의 모래시계는 속삭이는가
이곳에 어린 가슴뜨거운 사연을

그 사랑 어디라 깃들지 않았으랴

겨울철에 길이 얼면 미끄러워 넘어질수
　있다고
땅속에 난방관 묻어주자시던 산비탈
　돌판길
안전한가, 불편하지 않는가
먼저 몸소 타보시던 스키장의 삭도…

아, 이 나라 수천만 인민
한자식처럼 모두 품에 안아
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눈비오는 궂은날, 이슬찬 새벽길
많이도 걸으신 우리 원수님

그 사랑 너무도 뜨거워
그 은덕 천세만세 전해가자고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한목소리로 터치는 소리
—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한생 통일을 불러

김 상 훈(작가)

- 1919년 7월 10일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출생.
- 1943년 10월 원산철도공장에서 로동.
- 1946년 현대일보사에서 활동.
- 1950년 7월 의용군으로 입대.
- 1962년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활동.
- 1987년 8월 30일 사망.
- 조국통일상수상자.

《조선은 하나다!》
나의 말은 한평생
이 한마디뿐이다

…

이 말 웨치며 싸우리라!
불에도 뛰여들고 물에도 뛰여들고
적의 교수대에도 기꺼이 오르리라

내 통일의 원쑤들과 싸우다 죽으면
땅우에 흩어진 살점 하나하나
붉게 뿌려진 피방울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높이 웨칠것이다
《조선은 하나다!》라고

(김상훈의 시 《한마디 말》중에서)

향 거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인간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고향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이런 무서운 질책이 밤에도 날아오고 낮에도 날아오고 벽에서도 날아오고 천정에서도 날아오고 땅에서도 날아오른다.》

(김상훈의 글중에서)

거대한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막힌 산골농촌마을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거멓게 썩어든 두터운 벼짚이영을 인 초가집들이 산기슭에 다닥다닥하니 붙은 골안에 이르니 농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괴물같이 큰 기와집이 눈앞에 막아나섰다.

넓다란 마당에 들어선 어린 김상훈은 겁기어린 눈동자로 옆에 서있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동네적으로 비단을 걸치고 하얀 쌀밥을 먹는 집은 바로 이 집뿐이였다.

피죽도 없어서 초근목피로 연명해가는 동네사람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둔 이 지주집에서 자기에게 흰쌀밥과 고운 옷을 준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모자가 대문안에 들어서자 《허, 인제야 왔나?》하는 힐난의 목소리와 함께 큰아버지벌이 되는 김채환이 비단저고리를 걸치고 토방마루에 나섰다.

어머니는 죄스러운 자세로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떠듬거렸다.

《저 어, 정작 아이를 떼놓자고 생각하니…》

《물론 제 새끼와 떨어지자니 가슴이 아프겠지. 허나 임자네 집이야 벼룩이도 먹여살리기 힘든 형편이

아닌가. 저애를 우리 집안에 들여보내면 호강스럽게 자라고 또 우리 상산 김씨가문의 종가집 장손이 될텐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데 있겠나.》

…

이렇게 되여 김상훈은 여섯살 나던 해인 1925년 친부모들과 헤여져 고향마을의 지주인 김채환의 양아들로 되였다.

그는 1919년 7월 거창군 가조면에서 아버지 김채완, 어머니 권태성의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집은 얼마 되지 않는 토지를 자작으로 경작하였는데 소가 없고 로력이 부족해서 해마다 생활이 쪼들리군 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온 한해 밭에서 살며 피땀을 묻어왔건만 언제 한번 배부른 날이 없었다.

김상훈은 태여나서부터 무명낳이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눈에 익혀왔으며 걸음마를 떼면서부터는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이삭줏기에 따라다니군 하였다.

갈수록 설익은 조롱박처럼 초들초들 말라들어가는 집안살림에 지칠대로 지친 아버지는 노상 술독에 빠져살았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그래도 조선독립이라는 기대를 안고 아버지는 얼마 안되는 가산을 팔아 독립군들의 뒤바라지를 했었다.

그런데 독립군은 독립은커녕 왜놈들과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초야의 무주고혼으로 되거나 산산이 흩어지고말았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거의 타락한 인생길을 걸었다. 사는것을 귀찮게 여기는데 습관이 되였으며 걸핏하면 화를 내군 하였다.

쪼들리며 말라들어가는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어머니는 상훈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

그렇게 온갖 정을 깡그리 쏟아가며 키워가는 아들인데 갑자기 종가집에서 양자로 삼겠다고 하니 애틋하고 정결한 모성애는 무참히 란도질당하는듯 했다.

후날 알게 된 일이지만 김채환도 김상훈과 마찬가지로 자식없는 큰집에 양아들로 입양한 몸이였다. 종손이 되여 대를 잇기는 하였으나 정작 자기 대에 와서 자식을 보지 못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그였다.

김상훈은 양자로 큰집에 들어온 해부터 시작하여 6년간을 고향에 있는 공립보통학교에 다녔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자 양아버지는 그에게 한문공부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원래부터 남다른 영민성과 감수성을 지닌 김상훈은 훈장이 배워주는 내용을 인차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군 하였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벌써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뗐다.

하지만 김상훈의 마음은 도저히 밝아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소리없이 닥쳐온 부귀를 누리는 어린 그의 마음에서는 항상 친부모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가 큰집에 옮겨온지 얼마후 친아버지인 김채완은 그만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고말았다.

박복한 운명을 타고난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때없이 담너머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있는 람루한 옷차림의 녀인, 그가 다름아닌 자기의 친어머니 권태성이라는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무엇때문에 양가집과 생가집, 양부모와 친부모들의 차이가 이리도 심하단 말인가?

양가집 주인들은 비단옷을 입고 머슴을 부리며 부

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들은 가난을 명줄로 안고 태여난것만 같았다.

자기 주위에서 배회하는 불공평한 인간세상의 비밀을 제손으로 해득하고싶은 마음은 가야산의 봉우리처럼 높아만 갔다.

그는 진정한 공부를 하고싶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당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며 불합리한 이 사회를 투시하는 눈을 가지고싶었다.

《저도 중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싶습니다. 수락해주십시오.》

며칠동안을 벼르고벼르다가 큰마음먹고 꺼낸 말이였다.

《남들이 신학문, 신학문 하니까 너도 그게 그렇게 좋아보이느냐? 그건 다 부질없는짓이야. 집에 있으면 먹고 입고 사는것이 하나도 걱정없는데 뭣때문에 객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사서한단 말이냐. 그런 말은 다시는 꺼내지 말아.》

대번에 그의 요구를 묵살해버린 김채환은 신학문은 진짜공부가 아니며 한문을 익혀야 옳은 공부로 된다고 력설하였다.

김상훈은 자기의 요구가 수락될 때까지 일체 식음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덜된 놈의 자식, 그래 이 애비의 요구가 그렇게도 마뜩지 않느냐?》

김채환은 노발대발하며 김상훈의 처사를 꾸짖었다.

그러나 김상훈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두문불출하며 절식하는 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에도 상훈의 방에 김채환이 들어왔다.

《네 소원이 정 그렇다니 학교에는 보내주겠다.》

김상훈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가 내놓은 조건이란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장가를 가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문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의 속심은 장가를 보내서 종가집안의 대를 잇게 할 자식을 보자는데 있었다.

그 조건은 김상훈에게 있어서 너무도 아름찬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벌써 자기를 울타리처럼 둘러막은 높은 산발너머로 달리고있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16살이 되는 해인 1935년에 북상면에서 사는 녀성과 결혼을 하게 되였다.

김상훈은 1936년초에 드디여 자기를 둘러막고있던 울타리에서 해방되였다.

김상훈은 그해 4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사립중등학교 시험을 치르었다.

시험장에서 그는 또다시 나라잃은 민족의 수치를 절감하게 되였다. 모든 시험은 조선말이 아니라 일본어로 치르게 된것이였다.

김상훈은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산골에서 한자공부만을 해온 그에게 일본어란 너무도 생소한것이 아닐수 없었다. 시험은 치나마나 락선이였으며 그렇게 되면 또 집게같은 양아버지의 손아귀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다.

바로 오늘을 위해 모든것을 희생한 그였다. 시험지만을 들여다보며 길게 한숨을 토해내던 그는 피뜩 떠오르는 생각에 펜을 들었다.

에라, 모르겠다.

드디여 그의 펜은 시험지우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가 펜을 떼였을 때 시험지우에는 한시형식인 4언시가 적혀있었다.

그런데 결김에 써놓은 한시가 그의 입학시험지에 합격도장을 새기게 할줄은 꿈에도 몰랐다.

학교 교장은 김상훈의 4언시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나이에 재치있고 의미가 깊은 4언시를 쓴것을 보면 분명 천성적인 재능을 타고난것이 틀림없소. 난 이 수험생을 입학시키면 앞으로 훌륭한 학생이 되리라고 믿소.》

이렇게 되여 김상훈은 사립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였다.

그는 5년간의 재학기간에 력사, 문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이 기간에 그의 학문적시야만 트인것이 아니라 세계관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삼천리강토는 바로 제땅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의 땅이였으며 조선사람들은 제 말과 글, 이름마저 빼앗기고 살아야 하는 불행한 운명을 짊어

진 너무도 비참한 인생들이였다.

김상훈은 1944년에 쓴 시 《종다리》에서 사랑하는 친어머니와 고향땅에서 비참한 삶을 연명해나가는 농민들의 고달픔, 봄은 왔건만 제땅이 없어 봄을 맞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의 불우한 생활처지를 종다리의 울음소리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배움의 나날과 함께 김상훈의 두눈은 틔워져 나라를 빼앗긴 설음은 날이 갈수록 커갔으며 그에 대한 항거의식도 대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쌓이고쌓였던 울분은 그가 중등학교 3학년때에 처음으로 폭발하였다.

학교측에서는 일제의 강압에 못이겨 조선어과목을 전면적으로 페지하는 조치를 취했던것이다.

이를 계기로 김상훈은 동창생들과 함께 동맹휴학을 조직할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흥분으로 인한 항거로밖엔 달리되지 않았다.

난생처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걸음이라 총칼을 휘두르는 일제경찰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당면하게는 학교에 있는 악질친일교

원들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단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투쟁은 처음부터 흐지부지되고말았다. 조직자인 김상훈이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여 서울 종로경찰서에 구류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되였다.

일제의 야수적인 고문과 악행을 당해야 하는 류치장생활은 김상훈의 마음속에 자란 반일의식과 계급의식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온 나라가 감옥으로 전변되여 모든 조선사람들이 죄인취급을 당해야 하는 현실, 수난당한 민족의 아픔이 온몸으로 흘러들었다.

식민지민족의 아들로 태여난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식민지민족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제 나라를 되찾지 못하는것은 최대의 죄악이다!

일제에 대한 항거의식은 그의 모든 세포와 피줄마다에 그대로 흘러들었으며 반일성전에 나설 의지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10일만에 석방되여 나왔으나 학교에서는 그에게 무기정학처벌을 주었다.

그러나 반년후에는 해제되여 김상훈은 마침내 중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였다.

1940년 4월 서울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후 그의 반일정신은 더욱 굳어져갔으며 항거의 목소리로 울려나왔다.

당시 우리 인민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더욱 악랄해져 학생들은 문학공부도 제대로 할수 없었고 군사교련과 검도 등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했다.

김상훈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학생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맑스주의서적들을 적지 않게 탐독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투쟁의 길에 나설 결심을 품게 되였다.

어느해 그는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부모처자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동안 헤여진 양부모들과 안해, 자식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걸음은 구름을 탄듯 했다.

《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길 귀여운 자식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양가집에 이른 그는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여느때는 두팔을 벌리며 반기는 양부모들처럼 항

상 열려있던 대문이 오늘은 입을 꾹 다문채 차거운 랭기를 풍기고있었다.

대문에 붙인 《공산주의자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표어가 서슬푸르게 쏘아보고있었다.

방금전까지 흥분되였던 김상훈의 가슴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갔다.

집뜰안에서는 김채환의 분기어린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에 배은망덕한 놈! 가난뱅이를 집에 데려와 호의호식시켜주었는데 뭐 이젠 이 애비를 반대하는 빨갱이가 돼서 나타나?!… 오늘부터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한테는 너 같은 불효한 자식은 필요없다, 없어.》

김씨의 통곡소리도 들렸다. 제 자식처럼 품에 안고 키워온 상훈의 행동에 대한 장탄식이였다.

그렇듯 애틋한 정을 부어온 김상훈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어긋난 모습으로 나타난것이였다.

아버지를 보겠다고 모지름쓰는 맏아들의 손목을 꼭 잡은 안해의 울음소리도 귀청을 찌르고있었다.

한참후에 대문이 열리더니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양어머니 김씨가 매정스러운 눈초리로 김상훈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아들을 위해 남모르는 정을 부어주던 그 따스한 인정미와 애정은 간 곳 없고 얼음장처럼 차거운 표정이였다.

《빨갱이자식놈의것은 헌털뱅이도 다 보기 싫다!》

그러면서 그는 김상훈이 어릴 때부터 입던 옷가지들을 마구 내던졌다.

《더는 보고싶지 않으니 이걸 가지고 썩 사라지거라.》

식칼로 두부모를 자르듯 차거운 말을 남긴 김씨는 대문을 쾅하니 닫아버렸다.

김상훈은 발치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옷가지들을 내려다보았다.

이 양가집에서 살아온 나날들이 화폭처럼 안겨들었다.

그와 함께 담너머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짓던 녀인, 친어머니의 처량한 모습도 비껴들었다.

주섬주섬 옷가지들을 줏는 그의 얼굴에는 비통함이 어려있었다.

갑자기 손에 딱딱한것들이 잡혔다.

의문과 호기심이 엇갈린 심정으로 그는 그것들을 헤쳐보았다.

어떤 옷가지사이에는 엿가락들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옷가지에는 종이로 꽁꽁 싼 돈도 있었다.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모질게 이 아들을 욕질해야 하는 심정, 지금껏 키워온 자식을 한순간에 내버려야 하는 양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허나 무엇때문에 이 아들이 걷는 길을 리해하지 못하는가.

그래 한사람의 부귀와 안락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고 나의 친부모들과 같이 한생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세우려고 일제에게 항거한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김상훈은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돌렸다.

잘못했다는 단 한마디의 말로 사죄하고 다시 대문에 들어서면 이전의 생활을 되찾을수 있는 그였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려왔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은 세차게 굽이치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1947년 5월에 쓴 시 《어머니》에서 그날의 자기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

천사람이 무어라고 해도
제가 걷는 길은 바릅니다
과일밭에 돌팔매를 던지던 저일망정
젖가슴에서 받은 봄볕같은 따스한 사랑을
인민의 가슴속에 골고루 전해주는
그런 동무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들이 흙속에 들어가시고
입술과 더운 가슴이 모두 없어지면
흙을 움켜쥐고 어머니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흙을 사랑하는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1940년대에 이르러 일제는 식민지나라들에 대한 수탈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인민들은 극도의 기아와 빈궁속에 허덕이였으며 청

년들에게는 《징병령》이 내리고 학생들에게는 《학도병제》가 실시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과 《보국대》로 끌려나갔다.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있던 김상훈에게도 《학도병령장》이 떨어졌다.

그러나 침략자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수 없었던 그는 날마다 찾아와 성화를 먹이며 위협해나서는 경찰들의 눈길을 피해 경기도와 강원도일대로 피신하여 다녔다.

하지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미쳐날뛰는 왜놈경찰들의 마수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는 《학도병기피자》라는 죄 아닌 죄로 하여 2주일동안이나 각종 기합과 군사훈련을 받았다.

1943년 10월 김상훈은 《징용공》이라는 딱지가 붙은 몸으로 원산철도공장에 끌려가 선반공, 주물공으로 일했다.

일은 힘들고 고되였지만 김상훈은 로동자들에게서 강의한 의지와 기질, 투지를 배웠다.

그는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 백두산에서 강도 일제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시는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장군님과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빨찌산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안게 되였다.

그러던 1944년 여름 전문학교동창생이 그를 찾아왔다. 오래간만에 만난 그들은 너무도 반가워 서로 마주잡은 손을 놓을줄 몰랐다.

이날 동창생은 김상훈에게 일제를 반대하는 비밀결사조직에 가입하고싶은 생각이 없는가고 은근히 물었다.

김상훈은 그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병을 구실로 서울에 올라와 조선민족해방협동단이라는 반일지하단체에 가입하였다.

이 단체에는 징병, 학도병, 징용을 기피하여 숨어다니던 사람들이 망라되였다.

모두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안고 그놈들과 결사의 항전을 벌릴 큰뜻을 품고있는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옳은 로선과 주장이 없었다. 그들은 강원도에 있는 백운산에 별동대까지 조직하여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준비하고있었지만 적들과 싸워본 경험도 없었으며 가지고있는 무장장비란 고작해서 낡은 보총과 화승총 몇자루, 참대창이 전부였다. 오직 욕망과 의기만이 충만된 조직이였다.

조선민족해방협동단에서는 자기들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옳바른 투쟁로선과 방도를 찾기 위해 모색하다가 마침내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에 사람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후날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들이 파견한 대표는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조선인민혁명군과 련락을 맺지 못했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별동대는 변절자의 밀고로 비밀이 탄로되여 일제군경들의 《토벌》로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대원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희생되거나 피신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김상훈은 조선민족해방협동단과 별동대사이의 련락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가 철도공장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몇명의 사복쟁이들이 나타났다.

《네가 로스께인가?》

워낙 키가 남보다 크고 코날선이 뚜렷하며 두눈이 억실억실하게 생긴 미남형인 김상훈을 별동대에서는 다들 그렇게 불렀다.

아마 변절자가 김상훈의 이름을 모르고있었던 모양이였다.

그때까지 조직이 완전히 파괴된것을 모르고있던 김상훈은 사복쟁이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이상한것을 감촉하며 마뜩지 않은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요?》

말끝을 맺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네놈이나 말버릇이 꽤 고약하다.》

이렇게 되여 김상훈은 경찰에 체포되여 경기도 경찰부에서 한달동안 고문과 심문을 받으며 심한 고초를 당하다가 서대문형무소 미결감으로 수감되였다.

그때 조선민족해방협동단의 핵심성원들을 비롯하여 거의 백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감옥에 미결수로 갇히게 되였다.

김상훈은 비통한 마음으로 동가슴을 두드렸다. 집안에 덥벼든 파렴치한 날강도에게 매도 안겨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놈들의 사슬에 얽매였으니 이 나라 사

나이로서 어찌 하늘을 쳐다볼수 있으랴.

깊은 밤 철창밖에서 들려오는 가슴을 긁어내리는 한밤중의 소쩍새 울음소리는 도탄에 빠진 민족의 신음소리였고 밤낮없이 울부짖는 교형리들의 저 채찍소리는 겨레의 등가죽을 벗기는 소리였다.

과연 언제면 저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을 가셔내고 밝은 해빛이 이 땅우에 비쳐들랴.

가슴속을 사정없이 허비는 이런 절망과 한탄속에 김상훈은 고통스러운 옥중의 나날들을 흘러보내야 했다.

하지만 태양은 마침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며 떠올랐다. 어둠을 가셔내고 두터운 얼음벽을 녹이며 이 나라의 하늘가에 찬연히 솟아올랐다.

그 태양은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그 빛발은 산간벽지에도, 번화한 도회지에도, 차디찬 감방안에도 흘러들어 예속의 철쇄를 녹여버리였다.

그 휘황한 해발은 삼천리강토우에 마침내 조국해방이라는 크나큰 격정과 환희의 새 세계를 펼쳐놓은것이였다.

해방! 수십년세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갈망하던 날인가. 꿈속에서도 그려보고 가난의 쪽박으로 피눈물을 떠마시면서도 바라고 기원한 이날이여서 더없이 귀중하고 더없이 소중한 8월 15일이였다.

통일을 위하여

…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조국을 사랑하는 한가지 길밖에
인민을 위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는것밖에
나는 이래서 시를 쓴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다

(김상훈의 시 《나의 길》중에서)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나온 김상훈은 이듬해초 어느날 서울 남산밑에 있는 어느 한 하숙집으로 달려갔다.

《서병곤군!》

서병곤은 예고도 없이 뛰여든 그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아니… 아, 이게 상훈군이 아닌가?!》

두 친구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 시인이 갑자기 무슨 일로 나타났나?》

서병곤은 더운물을 부어주며 물었다.

김상훈은 흥분을 늦추지 못하며 품속에서 《서울신문》을 꺼내놓았다.

《나도 봤네. 우리 민족의 령수, 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쓴 자네의 이 기사를 읽었단 말이네.》

그제서야 서병곤은 친구의 얼굴이 왜 이처럼 상기되였는가를 짐작했다.

《병곤군! 지금 임자네들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을 모시고 쓴 기사 <우리의 영웅 **김일성**장군>의 열풍으로 온 서울장안이 환희로 들끓고있네. 우리 전체 조선민족이 오매에도 그리며 흠모하던 위대한 태양의 존귀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뵈옵게 된 우리들이 아닌가 말

일세.》

그러면서 김상훈은 가슴속에 넘쳐나는 감격과 희열을 억누르며 서병곤의 두어깨를 부여잡았다.

《병곤군, 정말 부럽네. 임자는 우리 남쪽에서 제일먼저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니고 그이에 대한 기사를 처음으로 쓴 행운아일세.》

서병곤은 정색한 기색이 되여 안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과찬하지 말라구. 솔직히 말해서 난 그 기사를 쓰고 자신을 얼마나 질책했는지 모르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해방의 은인, 조선민족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청년장군의 위인상을 너무도 짧은 기사로 썼으니…》

《병곤군, 나에게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옵던 일을 이야기해줄수 없겠나?》

김상훈의 절절한 눈빛에서 그의 심정을 읽으며 서병곤은 감격스러운 날들을 돌이켜보았다.

《난,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을 무한히 흠모하며 그리는 우리 남녘의 인민들에게 그이의 위인적인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려주는것이 기자로서의 직분을 다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행길을 단행하였네.》

이렇게 말꼭지를 뗀 서병곤은 자기들이 1945년 12월 28일 새벽녘에 38°선을 넘어 북으로 들어서던 때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소감에 대하여 터놓기 시작하였다.

평양행 기차의 앞머리에 정중히 모셔진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에 대하여, 새 조국건설의 열정으로 들끓는 북의 전야들에 대하여, 민주건설의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거리를 행진하는 학생들과 사람들의 얼굴들마다에 넘쳐나는 행복과 희망으로 밝은 웃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정말 꿈같은 세상이였네.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현실이였지. 공장담벽과 큰 건물들에 붙어있는 <조선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 만세!>, <우리의 손으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라!>는 구호들을 보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금시 맑아지는것만 같았네.

사실 정치적식견이 너무도 어린 우리였지만 하루동안에 목격한 북의 현실을 통해서 우린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베푸시는 현명한 정사에 대해서 알수 있었으며 우리 조선인민이 나아갈 길이 어느 길인가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을수 있었지.》

《그래, 그이께서는 우리 조선이 나아갈 앞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였나?》

김상훈은 여직껏 자기가 묻고싶었던것을 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우리 인민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워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너무도 현명하고 심오한 가르치심에 김상훈은 막혔던 가슴이 후련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바로 이 길이였구나!

김상훈은 암흑속에서 헤매다가 밝은 해빛을 본듯 앞이 환히 트이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른다면 무슨 일이든지 거침없이 해낼것만 같았다.

뜨거운 격정과 환희속에 흥분을 금치 못해하는

김상훈에게 서병곤은 정히 포개인 털외투를 들고 다가섰다.

《상훈군, 이 외투는 바로 장군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네!》

김상훈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털외투와 서병곤을 번갈아 보았다.

《우리가 떠나는 날 그이께서는 이 털외투와 털신을 보내주시였네. 추운 이 겨울에 외투도 변변히 입지 못한 우리들이 걱정되시여…》

그는 뜨거운것이 목에 꽉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언제면 나도 자애로운 그 품에 안길수 있을가. 아, 못견디게 그리운 **김일성**장군님의 품!)

김상훈은 보물을 받아안듯 그 외투를 정히 받아 자기의 품에 꼭 껴안았다.

절세의 위인의 뜨거운 체온이 자기의 온몸으로 흘러드는것만 같았다.

심장이 높뛰였고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여 시적흥분과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입가에서는 저도 모르게 즉흥시가 흘러나왔다.

비탄의 피울음 울며
절망의 거리를 헤매던 우리
장군님 밝혀준 민족의 진로따라
어깨겯고 나아가자 힘차게 앞으로!

이것은 결코 김상훈 혼자만이 아닌 남녘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이날 그들은 두손을 꼭 부여잡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혀주신 통일애국의 길에서 문필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것은 김상훈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운명의 선택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 바로 여기에 민족의 운명은 물론 자신의 운명을 참되게 개척해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그는 확신한것이였다.

압제의 사슬이 거미줄처럼 칭칭 감겨도는 남조선사회에서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고 지켜싸운다는것은 피와 목숨을 바쳐야 하는 혈전이나 다름없는것이였다.

1946년 1월 학도병동맹사건이 일어났다.

학도병동맹은 일제의 《학도병제》실시로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해방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청년학생들이 조직한 진보적인 단체였다.

여기에 망라된 성원들의 대다수가 애국적경향을 가진 젊은 지식인들이고 그들의 정치적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하여 동맹은 당시 주요정치세력의 하나로 지목되였다.

김상훈도 이 조직에 가입하여 서울 삼청동에 있는 본부와 문화회관에 자주 다니면서 이들과 마주앉아 시국을 론의하고 앞길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946년에 《전위시인집》을 공동으로 발간하여 전위시인으로 이름떨친 유진오, 김상훈, 박산운 등은 원래 학도병출신들이 아니였다.

다만 조선과 일본의 전문학교, 대학들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일본침략군대의 총알받이로 끌려나갔던 학도병출신 학우들과 동창생들의 연줄로 학도병동맹에 발을 들여놓았던것이다.

학도병동맹안에서 진보적인 청년학생들과의 접촉은 전위시인들의 창작활동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특히 일본군대의 삼엄한 철조망안에 갇혀있던 자기

들에게 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며 반일결사전을 각오해나섰던 반일학도병무장대 성원들이 전위시인들에게 준 영향은 컸다.

비록 몸은 남녘땅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의 품을 그리며 열정의 시, 투쟁의 노래를 구가한 전위시인들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러나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기쁨을 안고 새 조국건설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치리라던 김상훈을 비롯한 학도병동맹 성원들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도병동맹사건을 조작하였던것이다.

1946년 1월 18일 미제의 사촉을 받은 반탁전국학생련맹의 폭력배들은 인민당과 서울시인민위원회청사 등을 습격하면서 학도병동맹 성원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렸으며 이 과정에 량측에서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학도병동맹이 총기류를 소지하고 먼저 불집을 일으켰다는 무근거한 사실을 날조하여 19일 새

벽 삼청동에 있는 학도병동맹본부를 습격하였으며 동맹성원 3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온 서울시내는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된 3명의 렬사들과 영결하는 장례식장은 야수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울분으로 끓어번졌다.

이날 그들의 령전앞에서 김상훈은 피눈물을 삼키며 추모시 《눈물로 쓰는 시》를 랑송하였다.

…
함께 이 땅의 일군이 되자고
손과 손 맞잡고 맹세하드니만
머리 부서지고 가슴과 배가 찢어지고
의좋은 삼형제처럼 비좁게 맞대고
  누웠느냐
누구의 고운 맘인지 가느다란 초불만
  파달거린다

우리는 천백번 옳아도 죽고 끌려가고

바른말을 극성으로 보답하는자
의기충천하야 나라를 다스린다

아아, 앞서간 세 동무야 서러울건 없다
또 하나의 쇠사슬이 끊어질 때까지
네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무수한 동무가 있다

동지들의 영웅적희생은 김상훈의 투쟁열의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그들의 령전앞에 부끄럽지 않게 싸워 그들이 바라던 념원을 기어이 이룩할 일념을 안고 그는 학도병동맹 성원들과 함께 미제와 반동경찰들의 만행을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항의성명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파쑈적인 폭거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기만 했다.

미제의 마수에 의해 백주에 애국인사들이 거리에 피흘리며 쓰러졌고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감옥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민족을 또다시 피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항거로 김상훈은 전위시인들과 함께 1946년에 출판한 《전위시인집》에 시 5편(《말》, 《전원애화》, 《장렬》, 《기폭》, 《바람》)을 실었다.

…
황량하다 천한 촌백성이 사는 이 마을엔
어미가 자식을 헐벗겨 떨리고
삽살개 사람을 물어 흔들고
금전과 바뀌여진 딸자식을 잊으랴 애썼다
…

(시 《전원애화》 중에서)

김상훈은 해방후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의지를 밝힌 시들을 창작하였으며 이로부터 전위시인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는 자기가 일하던 현대일보사가 미제의 탄압으로 페간되자 시인으로서 창작활동에 힘을 기울이면서 조선문화단체총련합회(문련) 서기국에서 사업하였다.

문련서기국은 남조선의 문학예술에 대한 창작지도, 련락, 문건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역적은 진보적경향이 강한 문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다가 마침내 1949년 11월에는 문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이 사건으로 김상훈은 놈들에게 체포되여 룡산경찰서에 구금되게 되였다.

교형리들은 갖은 고문을 들이대면서 그의 통일의지를 꺾고 애국자들에 대한 단서를 뽑아내려고 미쳐날뛰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몇달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던 그는 병보석으로 출옥하게 되였다. 양아버지 김채환이 뒤공작을 한 대가였던것이다.

그날 감옥문을 나서면서 김상훈은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허, 반공분자가 련공분자를 구원해주었군!…》

그것은 어제날의 친일주구로부터 친미주구로 전락된 김채환에 대한 개탄이였다.

김상훈은 감옥문을 나서면서 자기의 심정을 시 《옥문》에 담았다.

옥문을 나섰으나 기쁘지 않소이다
아이는 울먹울먹 나를 반기지만
옥에서 다른 옥으로 전옥온듯 하오이다

…

양놈에게 매여사는 칼부림만 흔한 세상
나무 한그루도 마음놓고 못 서있는
이 땅 그 어디가 감옥이 아니리까

문이라고 생긴 문은 안팎이 있다지만
이 땅의 옥문들은 안팎이 없소이다
얽매인 이 발자욱을 그 어디로 옮기리까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과 그에 기생하는 역적무리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갔다.

김상훈은 예술의 무기를 틀어쥐고 불합리한 남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전위시인의 한사람이며 전후복구건설시기 가사 《복구건설의 노래》를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시인 류종대는 1947년 3월 《남조선민주투사들에게 드리는 시집》이라는 부제아래 발간된 김상훈의 시집 《대렬》의 후기에 이렇게 썼다.

《…아직 창백하고 병약했지만 약을 먹기보다, 부모에게 달려가기보다 상훈은 새 조선의 요구앞에 예술을 들고 거리로 뛰여나갔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조선청년이라면 다 그러하듯이 위대한 력사적현실앞에 새로운 각오가 불타올랐다. …》

약을 먹기보다 예술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간 사람!…

미제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 김상훈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자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진 흥분으로 가슴을 들먹이던 김상훈은 지체없이 손에 총을 틀어잡고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김상훈은 자기의 군복입은 모습을 력사라는 거울앞에 비쳐보았다.

침략자 외세와 동족의 피로 물든 군복을 입고 손

에 파쑈의 총칼을 든자들과 지금껏 맨손으로 싸워온 그에게 있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였다.

해방전에는 누런 군복을 입고 총칼로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죽여 이 땅을 하나의 피바다에 잠그었던 일제에게 항거하여 학도병을 거부했고 해방후에는 《해방자》로 자처하며 이 땅에 기여들어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살륙하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우리 겨레에게 강요한 미제와 그 하수인들을 반대하여 펜을 휘두르고 항거의 주먹을 내흔들던 그였다.

그러나 오늘 그가 입은 군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였다.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동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미제와 리승만역적을 반대하고 이 땅우에 평화롭고 정의로운 인민의 새세상, 조선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군복,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군복이였다.

《아빠, 우리도 같이 가면 안되나?》

《아버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오나요?》

올망졸망한 다섯 자식들이 그의 품에 와락 매달렸다.

김상훈은 아들딸들의 이름을 차례로 하나하나 불

렀다.

《얘들아, 아버지가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된다. 그때까지…》

목구멍이 꽉 메여와 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기약할수 없는 길이였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수천만의 생명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김상훈이였다.

의용군에 입대한 그는 싸우는 전선으로 포탄과 탄약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다.

이 나날 그는 피를 흘리며 귀중한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어이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 결사의 의지를 굳혀갔다.

포연탄우를 헤치며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김상훈은 1950년 가을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상에 누워 매일 매 시각 싸우는 전선의 전우들을 그리는 그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았다. 총탄이 모자라면 보병삽을 틀어잡고 육박전으로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고 수류탄이 떨어지면 가슴으로 적의 화

점을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던 귀중한 전우들이 그리워졌다.

그러한 그였기에 그는 채 완쾌되지 않은 몸이지만 우리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후방병원으로가 아니라 빨찌산부대에 소속되여 원쑤격멸의 성전을 이어나갔다.

빨찌산부대의 정찰분대에서 싸우던 김상훈은 곧 정치부에 소환되여 문화과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는 전투소보로 대원들을 승리에로 고무하였으며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김상훈은 이 나날에 《배낭의 노래》, 《봄비》, 《나의 노래여 불길이 되라》, 《소녀빨찌산》, 《습격조의 노래》, 《훈장》 등 수많은 시를 써서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선 용사들과 인민들을 고무하였다.

…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법
장군님 이끄시는 승리의 길에
간악한 원쑤놈들 무찌른 날에

영광의 전승가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밤과 낮이 없이
아둔한 목청을 가다듬고있다

나의 총구는 오직 원쑤를 향하여
나의 노래도 오직 원쑤를 향하여
불같은 증오로 달려나간다
아, 타오르는 불길이 되여!

(김상훈의 시 《나의 노래여 불길이 되라》중에서)

고마워라, 내 안겨사는 어버이품이여

조국의 해방과 함께 그가 처음으로 신문지면에서 뵈옵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품!

고마운 공화국의 품에 안겨 김상훈이 보낸 나날들은 그의 인생에서 더없이 참된 삶, 만복을 누린 나날들이였다.

이 땅을 위하여 헌신하자!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사

는 사회, 누구나 다 나라의 주인된 고마운 인민의 세상을 위하여 힘껏 일하자!

1958년 김상훈은 사회주의건설의 거세찬 열풍으로 들끓고있는 생산현장에 나갈것을 자원하였다.

복구건설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락원기계공장(당시)으로 탄원한 그는 재단직장에서 단야공으로 로동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로동은 그대로 시와 노래였으며 웃음이고 생활이였다.

약동하는 시대의 흐름속에 발걸음 뒤질세라, 변천되는 조국의 모습앞에 자신이 초라해질세라 김상훈은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더없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였다.

1958년 6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의 흔적이 채 가셔지지 않은 락원기계공장을 찾아주시였던것이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찾아주신 수령님을 공장에서 만나뵙게 된 락원의 로동계급은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해방후 《서울신문》에 실린 수령님의 젊으신 영상을 뵈옵고 그이를 민족의 수령으로, 운명의 구세주로 심장에 새겨안았던 김상훈이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소음이 진동하는 공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신 후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마주하시고 대형굴착기를 만들기만 하면 당이 안타까워하는 문제가 풀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도까지 의논해주시였다.

로동자들의 기름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인자하신 모습, 활달하고 소탈하신 그이의 환하신 모습앞에 김상훈은 목이 꽉 메여오고 심장은 흥분으로 세차게 고동치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 만세!》

언제 어떻게 터쳐나온 격정인지 알수 없었다.

만세의 우렁찬 합성에 답례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천하를 밝게 비치며 온 겨레를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시는 민족의 어버이의 모습이였다.

그날 밤 김상훈은 잠을 이룰수 없었다. 부드러운 압록강바람이 강변을 거니는 그를 포근히 감싸고있었다.

자꾸만 떠오르는 수령님에 대한 생각에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하늘가에 떠있는 수천수만의 별들은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는 격정과 흥분에 젖어있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있었다.

고요를 가볍게 건드리는 강바람조차 깊은 감명속에 잠긴 그를 깨우기 저어했다.

예지와 슬기가 빛나는 안광, 정열과 자신심이 넘쳐나시는 표정, 한없이 자애로우신 미소…

첫눈에 만사람들의 온넋을 끌어당기시는 절세위인의 존귀하신 영상을 그리며 그는 펜을 들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면
흐리던 날씨도 밝아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면
차갑던 누리도 더워집니다

…

(김상훈의 시 《수령님생각》 중에서)

심장을 높뛰게 하고 뇌리를 진감하는 격동적인 서정은 김상훈에게 가슴벅찬 시적세계를 안겨주었으며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한 공민으로서, 백두산절세위인의 숨결과 넋을 시시각각으로 체험하는 한 인간으로서 매혹과 숭배의 격정을 터치게 하였다.

이것은 그의 격정만이 아니였다.

보람찬 로동의 희열을 함께 나누던 정든 공장사람들, 이 나라 모든 인민들의 심정이였으며 환희의 웨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뵈옵고 그이에 대한 매혹과 신뢰로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던 김상훈은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에 영원히 몸을 맡기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칭송의 노래를 부를 결심을 더욱 굳혔다.

하기에 그는 1965년에 창작한 서정시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심장에 아로새긴 노래가 있어
생명보다 소중한 노래가 있어

영원히 변함없는 한마음으로
인민들은 수령님을 노래합니다

…

천만년이 천번을 거듭 흘러서
들과 바다가 바뀌고
모래알이 자라 큰 산이 될 때까지
이 노래는 끝없이 울릴것입니다
태양과 함께 영원할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 그날 김상훈은 안해와 함께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상훈이 새 가정을 이룬것은 몇해전이였다. 야전병원에서 퇴원한 그가 평양에 있는 어느 한 출판사에 배치되여 잡지를 편집하는 부서에서 한창 사업하던 1953년 가을 어느날이였다.

창밖에서는 어둠이 어슬렁어슬렁 찾아들었지만 김상훈은 시간의 흐름을 잊고 편집사업에 몰두하였다.

온 신경이 원고의 글줄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호흡

하던 그는 가볍게 문두드리는 소리도 감촉하지 못했다.

다시금 문기척소리가 울려서야 김상훈은 미심결에 눈길을 들었다.

반쯤 열려져있는 문밖에는 체소하고 영민하게 생긴 녀인이 서있었다. 출판사에서 여러번 보아 낯익은 얼굴이였다.

《동무가 어떻게?…》

녀인은 대답대신 주춤거리며 손에 든 원고부터 내밀었다.

그제서야 김상훈은 그가 원고편집때문에 왔다는것을 짐작했다. 이것이 그들의 첫 인연이였다.

그후 김상훈은 그 녀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였다. 그도 자기처럼 가슴속에 너무도 큰 상처를 안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저도 모르는 아픔이 흉벽을 허비였다.

27살의 젊은 녀성인 류희정의 고향은 군사분계선너머로 보이는 경기도 파주였다.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북에 들어와 출판사에서 일하고있었다. 미군의 폭격에 부모와 남편을

잃은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후퇴의 혼잡속에서 큰딸만 데리고 북으로 들어온 그는 남쪽에 있는 친척에게 맡기고 온 막내딸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있었다.

남녘에 있는 자식들과 상봉할 그날만을 그려보는 두사람의 마음은 한줄기로 이어져 새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 이렇게 결혼한 그들은 30여년간을 함께 살았다.

류희정은 결혼기념으로 자기 딸의 손목을 잡고 전등알 한알을 사왔다.

김상훈은 그것을 소중한 물건처럼 여겼다. 비록 집은 반토굴이였지만 가정을 밝은 빛으로 감싸안아주는 전등알은 장차 자기 가정의 창창한 앞날을 예언해주는것만 같았던것이다.

그는 즉시 전쟁시기부터 내내 쓰고 다니던 털모자를 전등알밑에 놓았다. 그것이 혹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랴 하는 심정에서였다.

그들의 가정은 행복하였다. 비록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안고있었지만 그 아픔이 한순간에 가셔질 그날을 위해 서로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나라를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했다. …

《여보, 난 오늘 뵈온 위대한 수령님의 존안을 심장에 간직하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그이를 받드는 전사로 살겠소.》

김상훈은 안해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류희정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도 더 많은 부속품들을 깎아서 우리 수령님의 복구건설구상을 힘껏 받들겠어요.》라고 화답했다.

김상훈에게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사는 날과 달의 흐름이 평범하지 않았다.

그가 공장에 탄원하여온 첫해 마가을이였다. 때는 김장철이라 가정마다 김치담그기에 손이 드바쁜 시기였다.

김상훈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에서는 그의 가정에 많은 배추를 공급하였다.

어른베개통보다도 더 크고 실한 배추들을 받은 그들은 공장일을 끝낸 다음 지게에 배추통들을 차곡차곡 쌓고 날랐다.

그러나 그것도 수월한 일이 아니였다. 전쟁시기 미

군의 폭격으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던 김상훈이나 녀성인 류희정의 힘에도 한계가 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절반도 채 나르지 못하고 모두 토방에 털썩 앉았다.

그들이 다리쉼을 하고있는데 대문쪽에서 웅성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작업반원들이였는데 모두들 등에 배추들을 한짐씩 지고 곧장 그의 집마당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상훈선생! 벌써 기운이 진했나?》

나이지숙한 작업반장의 석쉼한 목소리였다.

《아, 우리가 날라주겠다는데 고집을 부리더니…》

인심후한 목소리들이 무겁던 집안공기를 바꾸어놓았다. 그들은 퇴근길에 김상훈이 받은 배추들을 한짐씩 지고 왔던것이다.

후더운 인정세계앞에 그들부부는 목이 꽉 메여오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도저히 바랄수도,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하루일에 지친 그들이지만 너도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나선것이였다.

다음날에는 이웃아낙네들이 갓 이사온 평양집인 김상훈네의 김장을 도와주었다.

별식이 생겨도 집대문을 두드리고 집안에 경사가 생겨도 손을 잡아끌군 하는것이 바로 동네사람들이였고 작업반사람들이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양집이 있었으며 평양집은 그들의 다심어린 인정세계속에 아담하게 서있었다.

이웃들의 후더운 인심에 안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오히려 그들켠에서 나무라면서 질책하군 하였다.

《공부개나 했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속통이 좁쌀같나? 심장이 있으면 저 용광로처럼 뜨거워야지!》

《원, 별소릴 다하십니다. 우리야 한가정이 아니나요!》

한가정! 남에서 살 때에는 언어적관념이나 한집안의 울타리안에서만 존재하던 단어였다. 하지만 북에서는 그것이 동네와 직장, 온 나라에 파급되여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시대어로 되고있었다.

생활은 김상훈으로 하여금 모두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진심으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화국의 현

실에서 아름다운 인간들이 사는 세상,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의 본태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였다.

하기에 김상훈은 락원기계공장에서 생산로동을 하면서 시초 《단야공의 노래》, 장편수기 《인민복수자들》(1, 2권), 시 《안해의 기대앞에서》 등 수십편의 시들을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

공기함마의 가쁜 숨결은
한시각도 멎지 않았건만
상기 밤중인줄 알았는데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
완성공들의 성급한 재촉에

…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이렇게 지새는 밤은 좋구나
일을 해도 일을 해도 신이 나누나

가열로야 달아라
함마야 소리쳐라
신나게 한바탕 더 두드리자
우렁우렁 이 기계가 굴러나가
조합벌의 새싹이 파랗게 자라도록

(김상훈의 시 《이 함마소리 전야에 울리라!》중에서)

현실에서 매일 매 시각 받아안는 모든 체험들은 그에게 풍만한 창작적령감과 서정세계를 안겨주었다.

김상훈은 자기가 안긴 품에 대한 고마움이 커갈수록 보답의 마음을 더욱 굳혔다.

그는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우리 나라 한시집과 민요집을 수집편찬하고 번역할 큰 계획을 세웠다.

그의 이러한 결심을 지지하고 적극 떠밀어준것은

어머니조국이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희망과 소원을 깊이 헤아려 1962년초 그를 평양으로 소환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사업하도록 하여주었다.

앞날에 대한 희열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평양에 올라오는 그들을 기다린것은 보통강변에 새로 일떠선 아빠트였다.

서재까지 있는 새 집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살림도구와 가구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이날 김상훈은 밤이 깊도록 한마디의 말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곁에 다가온 안해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전쟁때 상한 부상자리가 또 도지는게 아니세요?》

김상훈은 안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난 행복한 사람이요.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이렇게 작가가 되였으니 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굽은 물기에 젖어 흐려져있었다.

김상훈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작가로서 참된 삶을 마음껏 누려가게 된 자랑과 긍지로 가슴을 들먹이며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문학으로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받드는 길에 헌신할 일념으로 순간순간을 살아온 김상훈이였기에 그는 자기 육신의 아픔보다 창작을 두고 더 고민하고 안타까와하였다.

어느해인가 한시들을 번역편집하던 김상훈은 그만 창작실에 쓰러졌다.

지나친 과로에 좌골신경통까지 겹쳐들어 운신을 할수 없는 몸이 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그를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비록 병상에 매인 몸이 되였지만 김상훈은 손에서 일을 놓을수 없었다.

일군들과 문단의 지우들, 의사와 간호원들이 만류했지만 김상훈은 그때마다 《난 문학을 떠나서는 못사는 사람이요. 받아안은 은정이 하늘같은데 내 살아생전에 고마운 내 조국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할게 아니요.》라고 하면서 창작의 붓을 멈추지 않았다.

오직 축복받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지와 행복감을 가슴에 안고 헌신의 일념으로 사는 불같은 사람이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병이 걱정되여 신경계통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치료에 효과가 좋은 종달온천이 있는 달천영예군인료양소에서 치료받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었다.

병을 완치하게 된 김상훈은 다시금 문단에 서게 되였으며 그후 자기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면서도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온 육신을 보답의 초불로 불태웠다.

안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품이 있어 김상훈은 우리 나라 고전문학을 번역소개하는 사업에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 생의 말년까지 《우리 나라 한시이야기》, 시집 《한시선집》(1, 2권), 시집 《풍요선집》, 시집 《력대시선집》, 시집 《가요집》(1, 2권), 시집 《리규보작품집》(1, 2권) 등을 번역편찬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나라의 고전문학연구사업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제 아비의 얼굴도 못 본채 어른이
　되여버린 손자와
손자가 너무도 제 아비를 닮아
　자꾸만 마음이
저릿해오는 늙은 할머니가
마당가에 함께 서서 철새를 보고있다

…

흐르는 물줄기가 바다를 이루듯
한곬으로 모아야 할 만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가시줄에 얽매여있어

혈육의 몸부림을 겹겹히 싸안고
할머니와 손자가 철새를 보고있다
(김상훈의 시 《철새》중에서)

김상훈의 생은 통일을 바라고 통일을 노래한 인생이였다고 할수 있다.

공화국에서 땅의 주인이 되여 풍년로적가리를 하늘높이 쌓아놓고 농악소리를 울려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황금이삭 물결치는 협동벌의 전야에 서있을 때도 언제나 고향을 잊지 못한 향토시인이였다.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서로 얼싸안는 통일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여 허리가 늘씬하도록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는것이 그의 소원이기도 했다.

그러한 김상훈이였기에 1971년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며 수령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남조선농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노래한 서정시 《흙》을 창작하였다.

…

이른 봄철이나 늦은 가을날에
수령님께서 뜻밖에 마을에 들리시여

늙은이는 백발숙여 절을 하옵고
철부지 어린것은 손길에 매달리며
거리와 집집마다 자랑이 넘치고
온 산천이 눈부시게 밝아올
그 가슴 저리도록 황홀한 순간을
농토와 농군들이 함께 꿈꾸나이다

…

가없는 하늘같이 넓고 크시고
밝은 봄날같이 인자하시고
아무리 간고한 싸움속에서도
다함없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원수님

수령님의 품을 목마르게 그리는
남쪽땅의 한줌의 흙과
그속에 스며있는 저희들의 맹세를
저희들을 보시는듯
보시옵소서!

진실하고 소박한 정서적형상으로 김상훈은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그리는 남조선농민들과 자기의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반영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고향은 비단 추억의 대상만이 아니였다. 조상의 무덤과 두고 온 혈육들과 자식들, 잊을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고향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였으며 한생 안고 산 마음속 상처였다. 한지맥으로 잇닿아 자동차길로 몇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그 길, 꿈속에서조차 발목이 시도록 걸어보던 그 고향길을 그는 수십여년동안 찾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서 고향은 분렬의 비극을 안고 몸부림치는 이 나라의 강토였으며 처자들에 대한 그리움은 자기의 혈육들을 찾고 부르며 통일, 통일을 목놓아 부르는 겨레의 웨침이였다.

외세가 없는 고향땅, 서로가 얼싸안고 온 민족이 모여 통일잔치 벌릴 그날은 과연 언제일가?

어느해 일요일, 이날 열두살 난 맏아들 김종설은 집안의 구석들을 뒤지다가 당반우에 놓인 낡은 고리짝을 발견하였다.

동심으로부터 오는 호기심에 헤쳐보니 그속에는 뜻밖에도 이전에 전혀 본적이 없는 옷가지, 집식구들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새옷들이 차곡하니 들어있었다.

《아버지, 이건 무슨 옷들이나요?》

서재에서 책을 보던 김상훈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그었다.

《종설아, 이건 남쪽에 있는 네 형님들과 누나들의 옷이란다.》

아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까지 남조선에 자기의 이복형제들이 있다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였다.

자리에서 일어선 김상훈은 창가로 다가가 흐릿한 눈길로 멀리 남쪽하늘을 바라보았다.

두고 온 자식들의 얼굴이 그의 흉곽에 아프게 비껴들어왔다.

《아버지, 그럼 형님들과 누나들은 거기서 뭘 하나요?》

아들의 물음앞에 김상훈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어린 자식들과 헤여진지도 이젠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소식 한장 나누어보지 못한 그들이였다.

살아나 있는지… 살아있으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가슴을 저미며 눈앞에 얼른거리는 자식들의 얼굴들을 그려보는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고있었다.

《종철, 종식, 종국, 경애, 경숙.》

행복넘친 이 집안이 터지도록 한구들 모여앉아 함께 웃을 그날은 과연 언제인지…

북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를 바라보며 《아버지!》하고 목메여 웨칠 다섯 자식들의 눈물젖은 모습은 김상훈의 한생에 영원히 지우지 못한 상처였다.

《속가슴 타는것이 밤초불 그뿐이며 피울음 우는것이 산 접동새 그뿐이더냐.》 하며 장밤 눈물을 흘리던 날들은 또 그 얼마였던가.

벌써 열해가 지나갔다
내가 손에 총을 잡고
집을 나서던 그날 아침엔
너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빠 안녕히!》를 해보였지

…
마름집이나 큰집의
멍텅구리같은 아이녀석들이
혹 너를 아버지가 없다고 놀려주거든
너는 고개를 더 번쩍 쳐들고
북쪽하늘을 바라보아라
…

(김상훈의 시 《아버지의 부탁》중에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통일시인이라고 불렀다.

그렇듯 그의 시는 통일을 노래했고 목이 쉬도록 통일을 불러왔다. 민족분렬의 원흉인 외세와 반통일분자들을 저주하면서도, 통일없이 지나는 섣달그믐날밤에 분렬의 아픔으로 피울음을 토하면서도…

그의 시는 사람들을 울리군 하였다.

고향을 남쪽에 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가슴굽을 허비고 통일의 아침을 기원하며 눈물을 흘리게 한다.

워낙 인정이 많고 다감하며 유모아까지 풍부한 김상훈은 자기의 시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

게 미안한감을 느끼며 시의 양상을 밝게 하려고 애를 쓰기까지 했다.

새 빛이 터져나와
하늘땅이 다시 열려
산도 절로 물도 절로
뭉게구름 기쁨이는
삼천리 이 강산에
통일의 날 오거들랑

강강수월래로
두레춤을 추어보세
…

(김상훈의 시 《강강수월래》 중에서)

김상훈은 이 시에서 조국통일의 념원을 밝은 웃음으로 펴보이려고 하였다.

통일시인 김상훈은 누구보다도 더 통일을 그리워하였다. 받아안는 혜택과 믿음이 커갈수록, 세월의 년륜속에 머리에 흰서리가 한오리두오리 늘어날 때마다

가슴 섬찟하게 느껴지는것은 민족분렬의 아픔이였다.

김상훈에게 있어서 고향은 육신의 한 부분이였고 조국통일은 그의 전부였다.

그는 언제나 자기 가정의 비극을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당하는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1987년 8월말 김상훈은 침상에서 마지막숨을 내쉬고있었다.

자기가 불치의 병을 앓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미 계획했던 고전시가작품들을 번역편집하는 사업에 혼신을 바쳐온 그였다.

《아버님!…》

눈물을 흘리는 맏아들의 눈굽을 닦아주며 김상훈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종설아, 통일이 되면 자식들을 데리고 이 애비의 고향에 가서 큰소리로 웨치거라. <내가 상산 김씨 김상훈의 아들이다!>라구 말이다. 그리구 네 형들과 누이들도 꼭 찾아보거라. …》

마지막숨을 거두면서도 통일된 조국과 사랑하는

고향땅, 남쪽에 있는 자식들을 그려본 작가 김상훈!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훌륭한 시들로 빛나게 장식하였다.

김상훈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송가들인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노래》(1965년), 《2월의 송가》(1975년) 등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다년간의 현지체험에 기초하여 시초 《단야공의 노래》(1959년), 시 《안해의 기대앞에서》(1960년) 등 현실주제의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시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그는 시초 《어머니에 대한 생각》(1980년), 시 《한마디 말》(1987년) 등 수많은 통일주제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출판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피두터운 창작수첩에 써놓은 수백편에 달하는 통일주제의 시가작품들에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뜨겁게 노래하였다.

수천수만의 전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생전

이나 사후에나 변함없이 아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작가 김상훈이 불치의 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그의 장례를 기관장으로 잘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수년전에 떠나간 작가를 잊지 못하시여 1991년에는 그가 창작한 시들을 묶어 시집 《흙》을 출판하도록 하여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주고싶어하시는 그이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비록 작가는 떠나갔어도 조국통일을 위해 바친 그의 공로와 한생토록 그가 부르고부른 통일의 노래들을 높이 평가하시여 1998년 4월에는 김상훈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령님들의 대해같은 은정그대로 이제는 자식들의 기억속에서마저 삭막해졌을 김상훈의 시, 그가 조국통일을 기원하며 창작한 작품들이 하나라도 빠질세라 진주

알처럼 다 찾아내여 2015년에는 또다시 그의 시집 《통일을 불러》를 출판하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정녕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고마운 어머니의 품,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김상훈의 가정은 대를 이어가면서 세상의 만복을 다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되였다.

나라에서는 둘째아들 김종석의 문학적재능을 귀중히 여겨 그가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로서 아버지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여주었다.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고 내세워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어 김종석은 두편의 장편소설과 영화문학 《평양날파람》을 창작하여 오늘은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작가로 자라날수 있었다.

자식들만이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 마음껏 배우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으며 오늘은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애국투쟁의 대오에서 모든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김상훈은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기여 우리 주체조선의 문학사에 보람찬 생의 한페지를 남기고 온 나라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작가로, 온 민족이 다 아는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작가의 말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작품뒤에 덧붙은 구호나 조잡한 군더더기가 아니라 작품속에 반영된 진실한 생활이며 생동한 투쟁이며 고동치는 맥박이며 사상이며 정열인것이다.》

(로신, 중국)

《시는 온갖 재능의 내적인 불이다.》

(도스또옙스끼, 로씨야)

《훌륭히 씌여진것은 어느때 가도 싫증나지 않는다. 문체는 생활자체이며 사상의 피다.》

(플로배르, 프랑스)

【단편소설】

편 지

정 명 남

《…어머니! 네살적에 불러보았던 이 부름을 반백년이 되여오는 오늘에야 다시 불러보며 이 딸은 펜으로가 아니라 눈물로 이 글을 씁니다. 어쩌면… 피를 나눈 모녀가 장장 수십년세월 소식 한번 없이 갈라져 사는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앞에서도 썼듯이 변호사인 제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숨진 량심수명예회복에 나서서 무죄로 확증한 사람들중에 바로 다름아닌 외할아버지가 있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전 놀라지 않을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나의 어머니가 친할머니가 말했듯이 가족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해외로 갔다는게 사실인가고? 아버진 창백해진 얼굴로 눈을 감고계시다가 머리를 가로젓더군요. 그러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닷새후 림종을 앞

두고 아버지는 내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날 운명하시고요. …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얼굴마저 삭막해지게 만든 수십년세월앞에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어머닌 자기 딸과 헤여진채 지금까지 소식 한장 전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독한 녀자인가요? 말해주세요! 어서요!…》

보풀진 편지를 읽어가던 백발의 녀인은 눈물을 흘리며 로인반점이 다분한 손으로 책상우에 놓여있는 딸랭이를 집어들었다. 그 무엇에 되게 부딪쳤었는지 미세한 금이 가고 긁힌 자국도 력력한 딸랭이를 점도록 바라보던 녀인은 그것을 천천히 흔들었다.

《딸랑 딸랑…》

순간 녀인의 입가에 떠오른 엷은 웃음발이 주름속으로 퍼져나갔다. 눈앞에 사랑하는 딸애가 두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모습이 얼른거렸던것이다.

녀인은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주름간 눈가에 맺힌 눈물이 회답편지를 쓰던 종이장우에 떨어졌다. 글자안으로 파고드는 눈물…

(내 딸아, 이 엄마는 어느 한순간도 널 잊은적이

없다. 그리고 꿈속일망정 네가 어렸을 때처럼 품에 안고 매일 이 딸랭이를 흔들어주군 했다. …)

녀인은 채머리를 떨며 다시 펜을 잡았다.

…무척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아마도 세월이란 아무리 사람들이 놓지 않으려고 애써도 강물처럼 쉽없이 무정하게 흘러가는가부다. 하나야, 엄마는 멀리서 이 편지를 쓴다. 물론 이 엄만 남쪽에 다시 가야 할 리유가 없다. 그럴 리유가 없지! 오직 너 아니면 그 땅과는 영영 인연을 끊어버리고싶은 나다. 너를 위해, 너와 다시 만날 상봉의 그날을 절절히 고대하기에 이 편지를 쓰는거다. 너무 주제넘는 욕심일가? 아마 넌 딸애를 버린 모진 에미가 무슨 낯으로 편지를 쓰는가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타매할지도 모르지.

《막돌처럼 버렸던 자식을 이제 와서 만나겠다고요? 당신은 독한 녀자예요. 독한 녀자!》

이 엄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옳다. 나는 엄마의 자격을 잃은 녀자다. 그렇지만 꼭 할 말이 있다. 왜 엄마가 자기 딸을 버린채 이국으로 왔으며 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깨여진 이 딸

랭이를 가지고있는지… 그 모든걸 가슴에 묻어두고 무덤으로 갈수 없기에 이 편지를 쓰는거다. 난 네가 편지를 마지막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며칠전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내가 살던 집이 보이더구나. 너를 만날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런데 글쎄 대문앞에서 한집에서 살던 어질고 착한 남편과 완고한 시어머니가 내앞을 가로막는것이 아니겠니? 나는 무릎을 꿇고 제발 널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빌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나를 죄인을 바라보듯 질시하며 집에 들여놓지 않았다.

이 엄만 꿈속일망정 숨막히도록 억울했다.

엄마가 제 딸과 만나려는데 왜 앞을 막는단 말인가! 대체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나는 죄가 없다. 백번 물어봐도 그건 내 죄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바라는게 뭐냐고 물으면 난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내 외동딸의 손을 부여잡고 실컷 한번 울어보고싶소! 하고 말이다.

하나야, 네 손을 잡고 소리쳐 울게 해다오. 백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니. 눈이 퉁퉁 붓도록 꺼

이꺼이 울고나면 원망의 응어리가 눈녹듯 깨끗이 녹아내릴지도 모르지. 누구든 소리쳐 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엄마는 평생 한번도 소리쳐 울지 못했다. 불쌍한 내 딸아! 엄마없는 설음을, 사랑의 빈 공백이 있는 그 구석은 무엇으로도 메꿀수 없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너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한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구나. 너무도 긴 세월이 우리앞에 장벽처럼 막아서고있으니 말이다. 아득한 장벽처럼…

그럼 먼저 네 이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할가? 누가 네 이름을 지어주었고 왜 네가 하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였는지…

지금도 엄만 너를 낳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 너를 낳기 전엔 다는 몰랐다. 전혀 몰랐지. 우리 모녀한테 그런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있을지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니. 손톱만큼이라도 낌새를 알았더라면 아마 너를 낳는 바보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거다. 절대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엄마는 세

상을 안은것만 같았다. 내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있다고 생각하니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신비롭고 감사하고… 바로 그걸 느낀 순간부터 엄마의 삶은 달라졌단다.

배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새 생명에 엄마의 모든게 맞춰져있었지. 어떻게 생겼을가? 누구를 닮았을가? 너와 나는 생명도 체온도 시간도 하나였다. 내 호흡속에 네 숨결이 담겨있고 내 기쁨속에 네 미소가 비껴있었단다. 아마 너는 알지 못할게다. 우린 그때 대화도 많이 나눴단다. 신비롭고 비밀스런 사랑의 대화를 말이다.

그날로 다시 돌아갈수만 있다면…

그때 넌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꼼지락꼼지락거리며 이 엄마를 조심스럽게 간지럽혔단다.

《엄마, 나 사랑해요?》

그럼 난 이렇게 말했지.

《엄마가 사랑하는 모든것을 합친것보다 더 사랑한단다.》

그럼 네가 또 소곤거리겠지.

《엄마, 나 엄마 빨리 보고싶어요.》

《엄마도 널 빨리 보고싶단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나의 귀여운 아가.》

어느덧 너를 낳을 행복한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그때 이상한 생각을 했다. 아기를 그처럼 사랑하는데 왜 이토록 아픔을 느끼는걸가?

나는 더는 아픔을 참을수 없어 조산원이였던 고모(네 외할아버지의 동생이란다.)의 손을 꽉 잡았다.

…정신이 아뜩해지는 순간, 귀가에 앙—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더구나. 아주 먼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같았지. 네가 태여난거다. 태줄을 끊고 이 세상에…

엄만 더없이 행복했다. 시어머니는 최씨집안에 금딸이 태여났다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더구나.

네 외할아버지 또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즐겨하시던 담배까지 끊었단다. 너의 건강에 해를 줄가봐…

고집이 센 시어머니는 네 이름은 최씨집혈통인것만큼 자기가 지어야 한다고 남편에게 요구했다. 마음어진 네 아버지는 순순히 응했지. 그런데 바로 그것때문에 네 친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다툴줄이야!

사실 외할아버지와 시어머니사이는 사돈지간이여도 어성버성했다. 왜냐하면 《유신》독재《정권》이 그토록 탄압하는 통일운동에 외할아버지가 나섰기때문이였다. 바로 그때문에 네 이름을 놓고도 서로 의가 맞지 않았지.

시어머니는 네가 가문의 유일한 꽃이라는 의미에서 일홍이라고 짓자고 하였고 외할아버지는 이름엔 뜻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최하나라고 짓자고 했다.

나도 왜서인지 네 외할아버지가 짓자는 이름이 좋더구나.

너도 알겠지만 외할아버지는 해방직후에 안해와 생리별당한 사람이였다. 어머니가 수십여리 북쪽으로 상거해있던 외가에 동생을 낳으러 간 사이에 《해방자》로 자처하며 38선이남에 진주한 미군이 그어놓은 지금의 분계선때문에 남과 북으로 분렬되게 되여 결국 외할아버지는 안해와 갈라지게 되였다.

그후 6.25전쟁이 터졌을 때도 외할아버지는 자나깨나 그리운 안해와 자식을 기어이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미군의 고용병에 불과한 《국군》에 강제징집되여 싸움판으로 끌려다니다보니 끝내 소원을 이

루지 못하고 그후에는 20여년을 탄식과 한숨으로 흘려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외할아버지가 원했듯이 나도 어머니와 상봉하는 그날만을 눈물속에 손꼽아 기다렸다.

나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외할아버지는 온 가족이 다시 모여살 그날을 그리며 당국에서 부르짖는 《승공통일》을 반대하여 련북통일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허나 그것때문에 중앙정보부나 경찰에서는 외할아버지를 《용공분자》로 지목하고 늘 감시하고 수시로 련행하면서 모질게도 괴롭혔고 네 친할머니는 사돈때문에 가정에 화가 미칠가봐 항상 불안해하군 했지. 그분들이 네 이름을 놓고 서로 다툰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결국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가운데서 바빠난것은 아버지와 나 그리고 이름없는 너였다.

그래, 넌 한동안 이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친할머니가 손을 들고 외할아버지가 짓자는 이름에 동의했다. 하나라고 말이다.

그렇게 백일쯤 지났을가?…

갑자기 우리 머리우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불행은 청천벽력처럼, 피할수 없는 운명처럼 들이닥쳤지.

하나야, 지금부터 잘 보거라. 앞에서 쓴것처럼 엄마의 꿈얘기를 기억하면서 말이다.

너를 만나려는 엄마의 앞을 왜 친할머니와 아버지가 막아서는 그런 꿈을 꾸어야 했는지 말이다.

네가 백날이 지났을 때 불행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왔다. 가정의 축복을 한몸에 받으며 재롱을 부리기 시작하던 어느날 불행이 갑자기 들이닥쳤지.

하루는 네 아버지가 사색이 되여 달려오더니 외할아버지가 《보안법》에 걸려 교도소에 잡혀가셨다고 알려주지 않겠니.

이를테면 《승공통일》을 반대하는 어느 한 집회에서 성토문을 읽었다는, 말하자면 《체제전복》을 기도했다는 협의로 말이다

말도 안되지. 외할아버지가 《체제전복》을 기도했다니? 죄는 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더니 난데없이 이 땅의 《주인》으로 둔갑해버린 외세

때문에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이 안해와 갈라져 생홀아비가 된 외할아버지가 가족과 만날 날을 고대하며 애쓴것이 과연 죄란 말이냐! 하나야,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구나. 네 이름을 지어준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이다. 너의 외할아버진 선량하고 남한테 싫은소리 한번 할줄 모르는 어질대로 어진분이란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아니고 그저 단지 북에 있는 자기 안해와 자식을 오매불망 못 잊어하며 가슴에 한을 안고 사는 홀아비였다.

그래서 북에 있는 안해와 자식을 한시바삐 만나야겠다고,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갈라져 피눈물을 흘리는 혈육들이 이제는 분렬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 길은 끊어진 동족의 피줄을 하나로 잇는 길뿐이라고 절절하게 웨친것밖에 없다.

아마 이 애절하고 피끓는 호소가 그자들, 《승공통일》을 부르짖는 외세와 당국자들의 염통을 섬찍하게 했는지…

외할아버지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달음으로 정신없이 교도소로 달려갔다. 글쎄 백날이 갓 지난 널 업고서 말이다.

우린 수수떡처럼 빨건 전등불밑에서, 퀴퀴한 냄새로 속이 메슥메슥한 면회실에서 철창을 마주하고 만났다. 고문을 당했는지 온통 얼굴에 상처자리가 있는 수인복을 입은 외할아버지를 말이다.

엄마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철창가까이로 너를 들어올렸고, 외할아버지는 철창사이로 손을 내밀어 간신히 고사리같이 여린 네 손가락을 잡았다.

엄마는 울먹이며 너의 외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백날이 지난지 며칠 됐어요.》

《오, 그래. 그렇게 지났단 말이지. 아쉽구나. 사실은 외손녀의 백날에 뭔가 주자고 했던것이…》

외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다가 네가 따라웃는것을 보고는 혀를 차셨다.

《허, 암만 봐도 애가 웃을 때 보면 신통히 어릴 때 널 빼물었구나. 그리고 어찌 보면 친할머니를 많이 닮은것 같기도 하고…》

《아니예요, 외할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어요.》

《허허허, 그런가? 좀더 자세히 보자꾸나.》

다행히 넌 방긋방긋 웃더구나. 낯설어서 울음을

터뜨릴줄 알았던 네가 말이다.

위험한 《빨갱이》라며 《특별취급》을 받는 철창안의 로인을 향해 너는 밝고 환한 미소를 선사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말이다. 그걸 보면서 엄만 역시 피는 속이지 못하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

엄만 면회날자만 되면 어김없이 너를 업고 외할아버지에게 갔다.

고독한 감방안에 있는 로인에게 한번이라도 더 네 밝은 미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이다.

그로부터 얼마나 날자가 흘렀는지…

아마 마지막공판이 진행되였던 그날은 비가 구질구질 내리던 을씨년스런 날이였던것 같다.

나는 너를 업고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으로 달려갔지.

재판정에서 외할아버진 이렇게 최후진술을 하셨다.

《그래, 본의도 아닌 타의때문에, 외세의 강요로 억울하게 혈육들이 갈라져 오랜 세월을 피눈물속에 살아온 비극이 더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나선것이 대체 어떻게 죄가 되는가 말이요?》

물뿌린듯 고요하던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진 멈추지 않고 그루를 박듯 힘있는 어조로 진술을 이어나갔다.

《어디 민족적인 량심을 가진이라면 대답을 좀 해 보시오. 그래, 끊어진 피줄을 하나로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것이 어찌 죄가 되고 <체제전복>이 된단 말이요?》

법정은 잠시 싸늘한 침묵이 흐르는가싶었다. 방청으로 참가한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였고 일부는 외할아버지에게는 죄가 없다고 소리쳤다. 나도 그대로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소리쳤지.

《아버님이 죄인이라니요?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의 아버진 죄인이 아니예요!》

얼마후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나를 포함한 몇명을 법정소란죄로 재판소밖으로 쫓아냈다.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 아스팔트바닥에 주저앉은채로 흐느껴울었다.

내가 서럽게 우니까 너도 잔등에서 덩달아 자지러지게 울더구나.

그때 너는 놀라서 울었었지. 철없는 네가 외할아버지가 왜 《죄인》이 되여 재판을 받는지 어떻게 알

았겠니?

얼마 지나 너는 지쳤는지 쌔근쌔근 잠이 들었다.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말이다. 그때 난 잠든 네 볼에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었단다. 넌 나에게 큰 위안이였고 힘이였단다. 몇번이고 주저앉고싶은 나에게 정말 의지가 되였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너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자고나면 커지고 자고나면 커지고… 마치 비온 뒤 대나무처럼 부쩍부쩍 자라더구나.

그래도 엄마는 전혀 무거운줄 몰랐다. 대신 시어머니때문에 마음은 점점 무거워만졌다.

어느날 저녁 시어머니는 네 아버지를 앉혀놓고 지청구를 늘어놓았지.

《며느리가 정신이 쑥 나간 모양이다. 저렇게 감옥에 자주 가다간 집안에 어떤 화를 불러올지 모른다. 다음부터 감옥에 가는것을 삼가하도록 네가 조처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다.

《어머닌 지금 잘못 생각하셔요. 저의 친정아버진

죄인이 아니예요.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간 시아버님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산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고 말이다.

허나 엄만 묵묵히 감수해야만 했다. 최씨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대들겠니?

시어머니는 계속 말에 날을 세워나갔다.

《어쨌든 동네에 소문날가봐 난 무섭다. 정 면회를 가려거든 혼자나 갈것이지 왜 돌도 안된 애기를 둘쳐업고 다닌단 말이냐. 난 싫다. 우리 최씨집안에 루가 미치는것을 가만히 보고있을수 없단 말이다. 그러니 이제부턴 정 가려거든 애기를 놔두고 가게 하거라.》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엄만 시어머니말을 따를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넌 외할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이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엄만 시어머니눈을 피해 너를 업고 집을 나섰다. 하루가 다르게 꺼칠해지는 외할아버지에게 너의 미소를 보인다고 생각하니 걸음이 힘들지 않더구나.

일은 바로 그날 오후에 터졌다. 엄마가 속이 한줌만해서 집에 들어서는 찰나에 시어머니의 노기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더니 너도 여간 고집이 세지 않구나. 이거야 어디 불안해서 살겠니. 아까도 파출소 담당형사랑 와서 집뒤짐을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 갔다. 벌써 몇번째냐! 매일이나 다름없이, 그것도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뛰여들어 사람들을 괴롭히니 어디 견딜수가 있냐. 게다가 네가 집에 없는걸 보니 또 감옥에 면회를 간것이 뻔하다고 하면서 그 며느리를 계속 끼고 살다가는 이 동네에서 더는 못 배겨낼거라고 경고까지 하고 갔다. 그러잖아도 구청에서랑은 동네사람들에게 우리 집은 <빨갱이> 집이니 상대하지 말라구, 이 말을 듣지 않다간 큰일이 난다구 주의를 주었다지 않니. 그래 넌 어쩔테냐? 내 참다못해 마지막으로 훈계를 하는데 이젠 감옥으로 다시는 발길질말아라. 만일 네가 정 내 말을 안 듣겠으면 애를 놔두고 이 집을 나가는수밖에 별도리가 없을것 같다.》

애를 놔두고 집을 나가다니?!

당장 눈앞이 아뜩해지고 캄캄해졌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시어머니와의 불협화음은 점

점 더 높아졌다.

나중엔 중재자역할을 하던 무던한 성격의 네 아버지까지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구나.

하나야, 그때의 나의 심정을 넌 상상해볼수 있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이 엄마의 심정을 말이다.

어쩔수없이 엄만 너를 선택했다. 감옥에 면회도 못 가고 사식도 넣어주지 못하면서 말이다.

바로 널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외할아버지의 모습, 꿈속에서 원망의 눈초리가 가슴을 찔러댔지만 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발 불효한 이 딸을 용서해줘요.》

외할아버지는 불과 1년을 못 넘기고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나야말로 불효자식이지. 아버지의 림종도 지켜드리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때의 심정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니!

결국 내가 외할아버지가 붙잡고있던 혈연의 끈을 놓아버린거다.

아니, 너와 외할아버지를 이어놓은 그 끈을 내가 잘라버린것이다. 철창을 사이에 둔 상봉일망정 어린 손녀의 얼굴을 한번 보는것이 외할아버지의 유일한 위안이였는데 그마저도 엄만 외면해버렸다.

하나야, 넌 생각해봤니? 버려진쪽이 더 가슴아플가? 아니면 버린쪽이 더 가슴아플가?…

내가 외할아버지의 시신을 받으러 교도소에 갔을 때 유품에 뭐가 있었는지 아니? 딸랭이가 있었다.

감옥에서 죽은 늙은이의 유품에서 나온 딸랭이! 누굴 줄려구 그렇게 고이 간직했는지 아느냐?

그건 바로 너의 백날에 선물하려고 외할아버지가 건사했던것이다.

시어머니는 딸랭이를 버리라고 했지만 난 몰래 건사했다. 그게 외할아버지와 너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 아니겠니! 너에게 쥐여주지 못하는 딸랭이…

장농안에서 소리 한번 울려보지 못하는 딸랭이를 보며 이 엄만 누가 볼세라 혼자 울군 했다. 아마 그때 너의 미소와 재롱만 아니였다면 이 엄만 시들시들 말라버리고말았을것이다.

내가 시름에 잠겨있으면 넌 품에 안겨들며 이렇

게 물었었지.

《엄만 왜 울어?》

그럼 난 네 얼굴에 그늘이 질것 같아 억지로 웃군 했다.

《엄마가 울긴 왜 울겠니? 보렴, 웃지 않니?》

그때 너의 해죽해죽 웃는 모습은 엄마가 다소나마 아픔의 상처를 잊게 해주었다. 그래, 너의 미소를 보는것이 엄마의 생활에선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였지.

그후부터 엄만 너에 대한 사랑에 빈구석이 생길가봐 겁이 나서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류수처럼 흘렀다. 넌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지. 예쁘기는 또 얼마나 예뻤다구. 나비처럼 팔랑팔랑 뛰여다니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마당가에서 늘 들려오군 했지.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 엄만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깜짝 놀랐다. 글쎄 밖에서 뛰놀던 네가 흐느껴울며 대문안에 들어서는것이 아니겠니.

엄만 더럭 겁이 나서 너를 붙잡고 성급하게 물었다.

《하나야, 왜 우느냐? 어서 말하거라. 어서!》

넌 대답을 못하고 한동안 울기만 했다. 몇번을 재촉해서야 떠듬거리며 이렇게 말하더구나.

《엄마, 나 다신 밖에 나가 놀지 않을래. 동네애들이 날 놀려줘. <빨갱이>의 손녀라고…》

《뭐?》

엄만 가슴이 철렁했다. 철없는 너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것이다.

난 떨리는 목소리로 너에게 물었다.

《누가 그러던?》

《다 그래. 엄마, <빨갱이>라는게 뭐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눈앞에 무수한 별찌들이 날아다니더구나.

철없는 애가 그런걸 묻다니…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딸한테서 그런 소릴 듣다니…

난 눈물로 얼룩진 너의 얼굴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하나야, 다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알겠니?》

그런데 응할줄 알았던 네가 이렇게 조르는것이 아니겠니.

《엄마 말해줘. <빨갱이>라는게 뭐게 아이들이 날 놀려주는가 말이야.》

《그만해!》

나는 그만에야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말았다. 아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친 것이리라!

넌 입술을 꼭 깨물고 한발두발 뒤로 물러서며 말끄러미 날 바라보기만 하더구나.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머루알같이 까만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이다.

난 네가 놀라서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두팔을 벌렸다.

《하나야, 놀라지 말아. 엄마가 잘못했다. 어서 오거라. 어서!》

했으나 너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마 넌 기억 못할게다.

그때 네가 비실비실 뒤걸음치다가 별안간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대문밖으로 뛰쳐나가던걸 말이다.

허나 엄만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니? 이게 혹시 우리 모녀의 작별을 예고하는것이 아닐가 하는 불안감이였다.

불식간에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더구나. 그리고 장농속에 감춰둔 딸랭이도…

엄만 가슴을 쳤다.

아, 이놈의 세상! 콱 무너져라. 이 저주맞을 땅에서는 어린 딸마저도 지켜줄수 없단 말인가.

하나야, 내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거냐? 엄만 잘못이 없다. 엄마는 이 땅에 태여나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적이 없다. 오죽하면 네 외할아버지가 나를 보구 땅바닥에 기여다니는 개미도 피해다닐 애라고 했겠니. 그런 내가, 나의 귀여운 딸이 남에게서 손가락질 받는다는것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져내리고 땅이 갈라지는것만 같았다.

하나야, 너도 생각해보렴. 그래, 외할아버지가 서로 갈라진 가족이 만나야 한다고 한것이 죄냐? 아버지가 《빨갱이》면 그 딸도 《빨갱이》이고 그 딸이 《빨갱이》면 그가 낳은 자식도 《빨갱이》라고? 이런 황당한 공식, 이런 억지, 이런 어페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나 이런 불합리가 이남땅에서는 엄연한 현실이였단다.

솔직히 나는 억울한 루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아

버지를 위해 구명운동 한번 벌리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발길을 끊고 면회도 다신 안 갔다. 바로 너때문에! 도리로 따지면야 아버지를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둔 그것이 불효막심한 죄지.

하나야, 엄만 그때 일을 두고 절대로 널 탓하지 않는다. 너는 《빨갱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며 애들의 놀림을 받는것이 몹시 서러웠겠지.

그래, 그때부터 너는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다. 내가 불러도 쉽게 다가오지 않고 말수더구도 적어졌지. 그리고 석양빛처럼 미소도 점차 사그라지고 동무도 없이 성장을 멈춘 아이처럼 그늘속에서 시들어갔다. 너의 미소를 보며 웃던 엄마의 얼굴에 또다시 시름이 깃들기 시작했다.

이 사회가 던져준 그늘밑에서 장농에 숨겨둔 딸랭이처럼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아야 할 《빨갱이》의 씨앗!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엄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다. 허나 그 결단은 늘 생각으로 끝나군 하였다. 정작 어린 딸과 리별하자고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 다름아닌 네 아버지가 내 잔등을 떠밀칠줄이야!

물론 리해가 되였다. 제 자식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진데 아버지야 오죽했겠니!

하루는 네 아버지가 대낮에 술을 억병으로 마시고 비칠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던 사람이 말이다. 아버지는 취중에 회사에 취직할수 없게 됐다며 유해작업때문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작은 회사까지도 안해가 《빨갱이》의 딸인 사람을 받았다간 공연히 당국의 심기를 건드려 영업을 망치는것은 물론 회사를 유지조차 할수 없다면서 도리질했다는것이다.

그것때문에 그날 아버지와 엄마는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었지. 난 지금껏 억눌렸던 가슴속 의분을 네 아버지에게 화산처럼 터뜨렸다. 그때 보니 넌 방 한구석에서 딸랭이를 들고 파들파들 떨더구나. 그 딸랭이는 시어머니가 웃방의 침상에 누워있고 또 아버지가 집에 없었으므로 엄마가 너에게 몰래 쥐여주었던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딸랭이를 띄여봤는지 리성을 잃은 아버지가 너에게서 딸랭이를 와락

빼앗는것이 아니겠니! 그리곤 그것을 힘껏 내던졌다.

《딸랑!》

그 무엇을 하소연하며 바닥에 나딩구는 딸랭이를 보는 순간 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물론 네 아버지가 야속했다. 허나 남들과 싸움 한번 못해본 그처럼 어질고 착한 아버지가 자식의 장난감인 딸랭이를 내던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이 사회를 엄만 끝없이 저주했다.

아버지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괴로와했고 중병에 걸려 바깥출입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당장 최씨집아이를 놔두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래도 이 엄만 너를 위해서 혀를 깨물며 참았다. 그런데 글쎄… 마지막에는 너까지, 철없는 너까지 이 엄마에게 등을 돌려대는것이 아니겠니!

그래, 엄마들의 용기라는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있어서는 나오지 않는다. 오직 그것이 자기의 살붙이에게 그 어떤 불행이 닥칠것이라는것을 현실로 느꼈을 때만이 생기는 법이다.

바로 그래서 엄마는 마침내 인생의 제일 힘든 결심을 내리고야말았다.

이 집, 이 사회에서 내가 살 곳은 없다. 모두가 나를 랭대하고 저주한다. 그처럼 사랑하는 딸까지도! 후날 엄마때문에 가정에 루가 미쳤다는 쓰라린 추억을 딸에게 남길바엔 차라리 떠나는편이 낫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이 집, 이 사회와 결별하여야 한다. 이 땅에서 내가 살 곳은 더는 없다!

그래서 이 엄만 집안사람들 모르게 그 저주맞을 땅을 떠나고야말았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금이 간 딸랭이만을 가지고 말이다.

내가 그 땅을 떠날 때 후회한게 무엇인지 아니? 차라리 그때 외할아버지에게 그냥 면회를 가지 못한 후회였다. 나에게서 딸을 빼앗은 이 저주로운 사회와 콱 싸우다 죽지 못한 후회였다. 너와 어진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것이 《죄》가 되여 그 《죄》를 따지는 이 사회에 돌멩이 하나 못 던진 후회였다!

바로 그 후회를 안고 엄마는 그 땅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그로부터 어느덧 수십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네가 결혼하기 전에 이 엄마는 고모의 편지를 통

해 집소식을 들은적이 있다. 그 고모로 말하면 네가 이 세상에 고고성을 터치도록 도와주었을뿐아니라 내가 너와 헤여져 여기 해외로 이민올 때 로자를 마련해준 고마운분이란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마저도 심장병을 앓고있는데 네가 그 병구완때문에 모진 고생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 편지에 너를 만나본 사실과 네가 이 어머니를 원망하더라는 내용이 담겨져있었는데 그것을 본 순간 난 하늘땅이 뒤집혀 엉켜도는듯 한 허탈감에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내가 너를 버렸다고? 어린 너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매정한 녀자라고? 엄마없는 아이의 설음이 어떤건지 나보다 더 잘 아는 녀자가 과연 있을가? 내자신부터가 어린시절 엄마없이 처절하게, 정에 목말라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널 쉽게 버릴수 있겠니? 천벌을 받는다.

아마 넌 내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래,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 자식 버리고 도망간 매정한 녀자라고!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허나 나쁜 소문이라는것은 의례히 사람의 감정을 해치도록 윤색되기마련이다. 앞에서도 썼지만 너와 난 생명도 체온도 시간도 언제나 하나였다.

그 불행한 소식을 듣는 순간 난 네가 뿌리 잘리운 나무처럼 홀로 시들면서 누구보다 마음속으로 가까이 의지해야 할 이 어머니를 아직도 오해하고있는것이 너무도 가슴에 저리여 온밤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네곁으로 달려가고싶었다.

허나 어린 딸과 생리별을 강요한 그 땅, 외할아버지에 이어 이 어머니의 단란한 가정마저 무참히 파괴해버린 인정과 진리의 동토대인 그 땅을 내 어찌 다시 밟을수 있겠니. 더우기나 《유신》독재《정권》이 종말을 고한 때로부터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문민정권》 등 《정부》가 많이 바뀌여왔지만 외세에 추종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며 통일을 저해하는 그 기조만은 변함이 없는 그 땅을 말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그렇게 근 20년의 세월이 덧흐르는 속에 별안간 뜻밖에도 너에게서 편지가 올줄이야!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도 너는 그 불모

의 땅에서도 기를 꺾이지 않고 꿋꿋이 성장하여 같이 대학을 다닌 좋은 청년과 가정을 이루어 옥동녀를 가진 어머니가 되였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더구나 네가 비록 뒤늦은감은 있지만 지금 외할아버지와 뜻을 같이하면서 함께 옥고를 치른 고령의 량심수들의 도움으로 많은것을 깨달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되찾는 길에 변호사로 나서서 겨레와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이들의 억울한 루명을 벗기

상 식

고조선시기부터 발전해온 자랑스러운 옻칠공예

옻칠공예는 옻(옻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칠하여 기물이나 장식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공예이다.

원시 및 고조선시기에 벌써 옻칠한 유물들이 나타났으며 세나라시기에는 우수한 옻칠공예품들을 만들었다. 그것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고구려의 고국원왕릉과 경상북도 경주의 금관무덤을 비롯한 옛무덤들에서 발굴된 채색옻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여 있는 옻칠관, 옻칠그릇들이 확증해주고있다. 옻칠공

고 그들의 명예회복에 헌신하고있는 사실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선뜻 믿어지지 않아 며칠밤을 지새웠단다.

이젠 너도 10대의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수십년전 이 어미가 당해야 했던 그 가슴아픈 불행에 대해 더욱 잘 알아야 할뿐더러 지금도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비극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우리 몇사람만이 아닌 온 겨레의 고통과 불행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예는 그후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거쳐 현대에 와서 높은 경지에 올랐다.

옻칠공예의 바탕으로는 흔히 나무를 쓰고 때로 금속이나 사기물을 올리지 않은 도자기, 베와 같이 설핀 천을 옻풀로 여러겹 붙인것을 쓴다.

옻칠법에는 투명옻칠과 불투명옻칠, 단순칠과 연마칠이 있고 장식법에도 자개박이장식, 금전장식, 옻칠그림장식, 옻칠조각장식 그리고 닭알껍질, 돌, 금가루, 은가루를 쓰는 장식과 이 방법들을 결합한 혼합장식이 있다. 옻칠공예품은 매우 견고하고 정결하며 윤기가 있어 사람들속에 널리 애용되고있으며 예로부터 이웃나라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공예의 산물이다.

아, 언제면 너와 마주앉아 네가 어릴적처럼 딸랭이를 손에 쥐여주고 즐겁게 웃어볼 날이 오겠는지… 정말이지 이 엄만 너에게 딸랭이를 안겨줄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네 편지를 받고서야 이 엄만 비로소 깨달았다.

민족분렬의 수난은 가만히 앉은자리에서는 가셔낼수 없고 우리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겨레의 통일은 애타게 기다린다고 찾아오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그 길이 설사 모진 고통과 비싼 희생을 요구한다고 해도 꼭 가야만 하며 그 길만이 우리 모녀의 생리별을 끝장내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살 통일에로 잇닿아있다는것을 말이다. 하기에 비록 때늦었지만 난 이 편지를 보내며 너와 손잡고 외할아버지가 그토록 념원했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그처럼 열망하는 통일애국의 길을 억세게 걸어갈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구나. …

녀인은 편지를 다 쓰고나서 축축해진 눈굽을 닦으며 딸랭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흔들었다.

《딸랑 딸랑…》

【시】

둘이 하나로 된다는것

리 명 선(재중동포)

둘이 엉키여 하나로 된다는것
불같은 사랑과
꽃같은 사랑이
별빛같은 피로
달빛같은 정으로
따사로운 태양의 빛살이 되여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것

둘이 뭉쳐서 하나로 된다는것
설레이는 바람과
웅숭깊은 구름이
번개의 속도로
우뢰의 기세로
분렬로 오래오래 가물든 삼천리를 적시는

폭우같은 시원한 단비되여 내리는것

둘이 모여서 하나로 된다는것
북쪽의 대동강과
남쪽의 한강이
삼천만의 뜨거운 열망과
오천만의 간절한 숙원을 안고
백두에서 한나까지 얼싸 감도는
도도한 동서해의 만경창파로 솟구치는것

둘이 합쳐서 하나로 된다는것
봄날같은 단합과
꿈같은 기적이
삼팔선을 지워놓고
가시철조망도 묻어놓고
끊어진 지맥과 혈맥을 이으며
위대한 우리 민족의 통일을 맞이하는것

둘이 손잡고 하나로 된다는것
아리랑고개 넘는 눈길과

노들강변 거니는 마음길이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한마음한뜻으로
자주통일된 삼천리금수강산에
영원한 륭성과 번영을 안아오는것

처음부터
워낙 하나였던 둘이니
그 둘이 도로 하나로 된다는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
너도 나도 그도 우리모두
영원히 다시는 갈라지지 않는 하나
어서빨리 한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편소설】

책상우에 그어진 《삼팔선》

강 길(재중동포)

김성걸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이 되였다. 원래 담임이였던 박선옥선생님은 남편이 있는 도시로 전근해갔다.

김성걸선생님은 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 총각선생님이다. 후리후리한 키에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며 부리부리한 눈이며 우뚝한 코며 참 멋있어보였다.

선생님은 조선어문을 잘 가르쳤다. 교재랑독을 실감나게 하였고 분석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였다. 조선문자는 한자보다 쓰기가 훨씬 쉽고 조선말은 형상적표현력을 가진 의성의태어가 많은데 웃음소리를 말할것 같으면 하하, 호호, 허허, 흐흐, 히히, 해해, 헤헤, 까르르, 키드득, 깔깔, 껄껄, 짜그르르, 와그르르… 하고 단숨에 이어대여서 우리는 그야말로 와그르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군 했었다.

나는 김성걸선생님을 좋아하였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조선어문을 어느 과목보다 더 좋아하게 되였다.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이 되여 처음으로 산수시험을 칠 때였다.

《곁눈질하지 말기, 보여주지 말기, 아는것만큼 쓰기》

선생님은 흑판에다 커다랗게 이렇게 써놓고는 교실 뒤켠에 가앉아서 무슨 책인지 열심히 보았다. 박선옥선생님은 교탁옆에 앉아서 누가 부정행위를 하나 눈을 똑바로 뜨고 살폈는데 그래도 나는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민구가 옆구리를 치면 선생님의 눈치를 살펴가며 나의 시험지를 민구에게 보여주군 하였었다.

민구가 또 나의 옆구리를 툭툭 쳤다. 시험지를 보여달라는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얼른 왼팔뚝으로 나의 시험지를 가리고 더는 보여주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김성걸선생님이였기에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였던것이다.

《씨— 이젠 같이 안 놀겠다는거지?》

민구가 치째진 뱁새눈을 지릅뜨며 씨근덕거렸다.

나는 선생님이 듣지 않았나 해서 뒤를 돌아다보았는데 그는 그냥 책만 보고있었다.

그 다음날이였다.

나와 민구는 한마을에서 살았기에 학교로 오갈 때면 언제나 함께 다녔는데 그날 민구는 혼자 먼저 학교에 왔었다.

내가 걸상에 앉자 민구는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이건 <삼팔선>이다. 한치라도 넘어서면 안돼!》

책상 한가운데 칼로 자국을 낸 금이 그어져있었다.

《흥, 너나 넘어서지 말아라!》

나는 코방귀를 뀌였다.

오후 자습시간이였다. 나는 산수문제를 푸느라고 골몰하고있는데 민구가 《이봐, <삼팔선>을 넘어왔다. 어쩔래?》 하고 씨벌이였다.

나의 양철필통이 팔굽에 밀려 책상 한가운데 그어놓은 금에 놓여있었던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네가 감히 어쩔테냐 하는 배짱에서 한마디 내뱉었다.

그러자 민구는 손으로 양철필통을 툭 쳐버렸다. 그

바람에 양철필통은 책상우에서 미끄러져 그만 땅바닥에 뚝 떨어졌다.

나는 얼른 양철필통을 집어들었다. 한쪽귀가 찌그러져있었다. 보기 싫었다. 아까왔다. 얼마나 아까운지, 아까운것만큼 민구가 미워졌다.

그 양철필통은 나의 작은아버지가 상해에 출장을 갔다가 나에게 선물로 사준것이였다. 그때 우리 반에 그런 양철필통을 갖고있는 아이는 나밖에 없었다. 거의 나무필통을 썼고 나무필통마저 없는 아이들은 연필을 책에 끼워가지고 학교를 다녔다.

방과후 민구는 먼저 교실을 빠져나갔다. 학교로 올 때도 먼저 혼자 온것처럼 집으로도 먼저 혼자 가려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뒤를 바싹 쫓아 마을이 보이는 강가의 외나무다리가 있는 모래불에 이르러서 그를 따라잡았다.

《야, 물어내라!》

나는 민구에게 걸고들었다.

《뭘 물어내? 말했잖아. <삼팔선>을 한치라도 넘어서선 안된다고…》

민구의 치뜬 눈이 차겁게 번뜩이였다.

《니가 그어놓으면 <삼팔선>이 되는거냐?》

《그렇잖구!》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대답이였다.

《<삼팔선> 좋아하네.》

나는 그만 주먹을 내질러 민구의 주둥이를 쳤다. 퍽 소리와 함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잇달아 민구의 주먹도 나의 코에 날아와 퍽 소리를 냈다. 대뜸 빨건 코피가 쏟아져나왔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모래불에 넘어져 뒹굴고 뒹굴리면서 치고받고 하였다.

《이 자식들, 웬 일루 죽기내기로 싸우는거냐? 그만하지 못해?!》

외나무다리를 건너온 마을어른이 뜯어말려서야 싸움은 끝났다.

이튿날, 학교에 간 나와 민구는 《인기인물》이 되였다. 민구의 입술은 터져 볼만 하였고 나의 코등은 퍼렇게 부어올라서 볼만 하였던것이다.

《주정뱅이처럼 술 처먹구 전보대에 부딪쳐 코등을 깬거야?》

《강아지와 뽀뽀하다가 그만 물린거지?》

장난꾸러기애들이 지꿎게 나와 민구를 놀려주었다.

그런데 김성걸선생님은 왜 그렇게 됐냐고 묻지도 않았다. 보고도 못 본체 아무런 눈치도 보이지 않고 오전 내내 예전처럼 강의만 할뿐이였다.

하루공부가 끝나서야 선생님은 《모두들 한눈 팔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것, 영수와 민구는 제자리에 앉아있어. 나 좀 보자.》라고 하는것이였다.

끝내 올것이 왔구나!

나는 가슴이 한줌만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싶었다.

아이들이 모두 교실을 빠져나가자 선생님은 교단에서 내려와 우리 책상앞에 있는 걸상을 돌려놓고 마주앉았다.

《둘이 싸웠지? 양철필통 망가져서? 어디서 싸웠어?》

선생님은 우리가 양철필통때문에 싸운것을 알고있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외나무다리 모래불…》

나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끝을 얼버무렸다.

《교실이 모래불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싸웠던 용기를 내서 다시 싸워봐! 누가 이기나 선생님이 똑똑히 보자.》

나는 선생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 실수로 사발을 깼을 때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하시던 말씀과 같은것이였다. 사발을 깬것이 어떻게 잘한 일이 될수 있겠는가. 그러니 선생님의 말씀은 싸우지 말았어야지 하는 뜻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그 어떤 끌림에 저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싸우겠습니다.》

뒤이어 민구도 내 말을 받아외우는듯 말했다.

《좋아. 그런데 둘 다 40점밖에는 못 주겠다. 나한테 말구 너희들 서로에게 말해봐.》

나는 민구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 망설이는데 민구가 먼저 《영수야, 내가 잘못했어. 양철필통이 땅바닥에 떨어져 망가지라고 친건 아니였는데…》 하고 울먹거렸다.

양철필통을 못내 부러워했던 민구였기에 나는 그 진심의 말을 믿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더 잘못했어. 손찌검질은 하지 말어야 했었는데…》

나도 진심으로 민구에게 빌었다.

《됐어. 이젠 서로 손을 잡고 마주서서 해쭉 웃어봐. 그럼 60점을 주마. 40점에 60점이 더해져서 100점이 될거야.》 하고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얼른 민구의 손을 잡고 히죽이 웃었다. 민구도 나의 손을 맞잡고 벙긋이 웃었다.

《그래, 참 보기 좋다. 선생님도 너희들때문에 웃는다. …》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나서 그는 민구가 칼로 자국을 내여 그어놓은 《삼팔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삼팔선>이란건 너희들이 태여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되던 때 외세에 의해 생겨난것인데 한몸뚱이인 조선을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허리를 잘라 갈라놓은것이란다. 책상우의 <삼팔선>이 하나의 책상을 절반으로 갈라놓은것처럼 조선의 <삼팔선>은 하나의 강토인 조선을 절반으로 갈라놓은 우리 백의동포 삼천만겨레에게는 아픔의 분렬선

이고 눈물의 분렬선이며 원한의 분렬선이란다. …》

선생님은 나와 민구가 《해방동이》라는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삼팔선》이라는것이 내가 태여난 해에 생겨난것임을 이때에야 똑똑히 알게 되였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조선전쟁때 <삼팔선>을 없애치우려고 했는데 미제때문에 없애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나갔던 작은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을 하였다.

선생님이 《난 외삼촌이 둘인데 평양과 서울로 각기 갈라져 살고있다. <삼팔선>이 막혀있어 아직까지 서로 만나지 못하고있어.》 하고 말씀하자 민구가 《우리 큰아버지네는 남조선에 있대요.》라고 하였다.

《우리 이모는 북에 있어요.》

나도 잇달아 말하였다.

《그래, 그 원한의 <삼팔선>이 없어져야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혈육들이 만날수 있고 우리도 자유롭게 오갈수 있는거야! 그러니 <삼팔선>은 없어져야 할게 아니냐?》

선생님은 민구에게 묻는듯 하였다.

《네. 맞아요!》

민구는 선뜻 대답하였다.

《<삼팔선>은 북과 남을 갈라놓은 장벽이구 언제 전쟁이 폭발할지 모를, 밟기만 하면 터질 지뢰와 같은거야! 책상우에 그어놓은 <삼팔선>으로 해서 너희들이 피투성이가 되게 싸운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외세에 의해 그어진 <삼팔선>은 우리 겨레가 하나로 뭉쳐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없애치워야 해! 어른들이 없애버리지 못하면 너희들이 자라나서 꼭 없애치워야 해!…》

선생님은 창밖을 내다보더니 《아, 너희들 배가 고프지 않니?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너희들이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이 선생님이 한턱 내마.》 하고 말머리를 돌리면서 자신이 먼저 일어나 교실을 나섰다.

나도 민구도 선생님의 뒤를 졸졸 따라 국수집으로 갔다.

선생님은 저가락질 몇번에 국수를 다 들고 육수물까지 후룩후룩 마시고나서 《너희들, 천천히 먹어. 난 다른데 볼일이 있어 먼저 가야겠다.》 하고는 국수집을 나갔다.

나와 민구는 마지막 국수 한오리까지 건져먹고나서 서로 쳐다보며 시물시물 웃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5학년 2학기가 시작된 첫날이였다.

늙수그레한 박세민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와서 《오늘부터 내가 이 반을 담임하게 되였다.》라고 청천벽력같은 말을 하였다.

모두 어리벙벙했는데 휴식시간이 되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김성걸선생님은 뜻밖의 불행을 당하여 교단을 떠나 다른 먼곳으로 갔다는것이였다.

(참 멋진 선생님이였는데…)

나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만 감돌았다.

맥이 빠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나무다리 모래불에 이르렀을 때였다.

민구가 불쑥 《너 여기 있어. 대패를 갖고 학교로 다시 가자.》 하고는 혼자 외나무다리를 건너 자기 집으로 뛰여갔다.

나는 민구가 뭘 하려고 그러는건지 짐작이 갔다. 그래서 멈춰서서 기다렸다. 그러느라니 여러가지 생각이 뒤엉켜 떠올랐다.

민구와 맞붙어 치고받고 뒹굴던 일이며 우리가 다시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김성걸선생님이 국수를 사주던 일이며, 《삼팔선》에 대해 그 선생님이 들려주던 이야기며…

민구는 대패를 갖고 빨리도 뛰여왔다. 숨이 차 헐떡거렸다. 나와 그는 학교로 달음박질쳐갔다.

교실에 들어서자 민구는 《삼팔선》이 그어진 책상웃면을 빡빡 밀기 시작했다. 백양나무널판자로 만든, 기름칠도 하지 않은 거칠은 책상이였다.

민구가 얼마간 밀고나면 내가 뒤이어 밀었다. 우리는 겨끔내기로 대패질을 했다. 반반히 밀어져가는 책상우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미운 <삼팔선>아, 사라져라!》

민구는 썩썩 대패질을 하면서 부르짖었다.

《미운 <삼팔선>아, 어서 없어져라!》

나도 빡빡 대패질을 하면서 웨쳤다.

반반해져가는 하얀 책상우에 땀방울과 함께 민구의 눈물방울도 떨어지고 나의 눈물방울도 떨어졌다. 얼마 안되여 책상우의 《삼팔선》은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지워졌다.

《새롭게 된 책상을 김성결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했었는데…》

민구는 뒤늦은것을 아쉬워하였다.

《아무때든 선생님은 우리가 스스로 <삼팔선>을 지워버리리라고 믿고있었을거야!》

나는 그 선생님이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있는 것 같았다!…

성구속담

– 자기 대접은 자기가 한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하는데 따라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는것을 이르는 말.

– 자기를 모르면 머저리가 된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여도 자기자신을 모르면 결국 머저리구실을 하게 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자식 잘못 기르면 호랑이만 못하다.

자식교양을 잘못하여 변변치 못한 인간으로 길러놓으면 돌이킬수 없는 후환을 입게 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시】

닭 알

— 조선은 하나 —

지 영 호(재중동포)

한껍질
그속에

노란자위
흰자위
둘이지만

우리는 분명
갈라져 살수 없는
한생명—

한어머니
한배속에서 나온
한살붙이
한몸체라오!

상 식

세계에서 가장 이른시기에 활동한 악단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악기가 제일먼저 발전한 나라의 하나로서 관현악도 일찍부터 발전하였다.

세나라시기에 벌써 고구려에서는 수십종의 관, 현, 타악기들로 구성된 직업적인 악단이 활동하고있었으며 그 음악은 당시 국내에서는 물론 이웃나라들에까지 전해져 명성을 떨쳤다는것이 내외의 옛 문헌들에 의하여 이미 확증되였다.

세나라시기를 이어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 초기에는 궁중에 백수십명의 연주가들로 구성된 중세기력사상 전례가 없는 대관현악단이 조직운영되였다.

15세기에는 이러한 대관현악단의 연주를 위한 큰 형식의 작품들인 《치화평》, 《취풍형》, 《여민락》 등이 왕성하게 창작되였다. 이 작품들은 총보형태로 조선봉건왕조실록에 기록되여 오늘까지 전해오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른시기에 악단을 조직운영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단편소설】

희　　망

신 홍 섭

1

우리 아가 어서 커서
무량한 기쁨 되여다오
네 앵두볼 포도입술엔
가정의 행복 담겼단다
…

작고 어둑할지언정 주부의 알뜰함과 섬세함이 차곡하니 안겨드는 방은 안정감과 함께 싱그러움을 풍겼다. 그 정서는 방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소야곡과도 같은 약하고 석쉼하나 감성짙은 노래가 받침하고 있는때문인지도 모른다. 거기에다 듣기에 노래가 흥감을 주는 까닭에 집안의 분위기나 조화로움에 흠

이 없을듯 했다.

노래소리는 부엌에서 방으로 옮겨지고있다. 그 《가수》는 키가 후릿하고 안경을 낀 서른살쯤 되여 보이는 칼칼하게 생긴 사람이다. 손에는 애기젖병이 들려있었는데 그는 그것으로 제법 자기 노래에 맞춰 《지휘》를 하며 주기적으로 흔드는것이였다.

방에 들어선 남자는 노래를 뚝 끊고 침대우에 앉아있는 젊은 녀인앞에 이르러서는 허리를 약간 구부렸다. 그리고는 서툴기는 하나 군인처럼 경례를 붙였다.

《나의 <장미>님, 분부대로 <희망>이의 젖병을 덥혀왔소이다.》

그러자 침대우에 누운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채우던 녀인의 긴 속눈섭아래 밝게 웃는 눈이 남자를 향했다. 그러다 남자의 팔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켰다.

남자는 젖병을 침대우에 흘리듯 놓고 날씬한 녀인의 허리를 감았다. 그리고는 등까지 흘러내려진 녀인의 광채나는 치렁한 머리채를 손가락으로 감았다 풀었다 하며 입술을 녀인의 귀에 슬며시 가져다댔다.

《난 행복자야. 난 <장미>를 통해 <희망>을 본 그야말로 행복자란 말…》

남자의 흥분된듯 한 말은 끊기고말았다. 가늘면서도 하얀 녀자의 손이 가볍게 남자의 입을 막았던것이다.

《영세씨의 그 노래, 자작노래가 참 멋져요. 내 마음, 우리 맘 다 담겼거던요.》

《<장미>가 좋다면 나도 좋은거야. 우리 <희망>이 크면 배워줄테야.》

남자는 녀인을 아예 삼키기라도 할듯 으스러지도록 더욱 꽉 그러안았다.

이때 《으흥… 호옹—》 하고 침대우의 아기가 종알거렸다. 금시 잠에서 깬듯 한 아기는 포동포동한 두손, 두발을 허공에 쳐들고 껴안고있는 어른들쪽에 신기해하는 표정의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어그어그… 우리 미연이, 우리 <희망>이…》

녀인이 남자의 품에서 가볍게 몸을 빼고 아기를 덮으며 반기였다. 젖병을 물려주자 아기는 기다렸다는듯 쪽쪽— 소리를 내며 빨아대기 시작했다. 배가 고팠던지 《쿠우— 쿠—》 하는 큰숨을 내쉬며 먹는것이였다.

《얘가 얼굴은 <장미>지만 건강만은 꼭 나야. 자, 자세히 보라니까.》

남자의 말에 녀인이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지난해초에 결혼한 신혼부부다. 곽영세라고 하는 남자는 손전화기판매소를 운영하고있다.

녀자는 라윤경, 아이를 낳고 얼마전부터 헬스제약회사에서 광고모델로 일한다. 결혼전까지만도 그는 옷전시모델로 일하였었다. 그만큼 용모가 빼여난 미인축에 들었다.

곽영세는 결혼전부터 자기 안해 라윤경의 미모나 마음을 장미에 비겨 오늘까지 애칭해오고있다.

그리고 7개월전에 딸 미연이를 낳았는데 애명으로 《희망》이라고 불러오는 그들이였다.

라윤경은 아기의 량겨드랑이로 손을 질러 뒤머리를 받쳐주었다. 그러자 딸 미연이는 무아경에 빠진듯 해쭉이며 캐득거렸다. 배가 불쑥해진 미연이는 젖병을 물리고는 눈에 익기 시작한 엄마의 볼이며 코며 입을 매만지면서 간지럽혔다. 그에 더 행복해하는건 엄마인듯 라윤경은 얼굴을 애한테 바투 갖다댄다.

곽영세가 무슨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지 《가만, 이제 보자구.》 하고는 안경을 벗고 엄한 인상을 애를 향해 지어보였다.

미연이는 돌연 해쭉이던 모습을 거두더니 미간을 세우고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이어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내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습강스런 부녀간의 행동에 눈물이 나도록 웃던 라윤경은 가벼운 핀잔의 눈길을 남편에게 보냈다.

곽영세는 입을 막고 킥킥하다 곧 안경을 다시 귀바퀴에 걸고 아기에게 얼굴을 바투 가져다댔다. 그러자 미연이는 이상하게도 울음을 그치더니 손과 발을 뻗치며 무랍없이 안경에 손을 뻗쳤다. 젊은 부부는 행복에 겨워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참, 이 정신… 그걸 까맣게 잊고있었군요.》

불쑥 라윤경이 눈이 똥그래지며 말했다. 곽영세도 작은 눈을 치뜨고 안해를 빤히 쳐다보았다.

《얘를 낳았을 때 순지네가 기념으로 준 인형 있잖아요. 아이참, 전자인형!》

《아하, 명구 그 친구네가… 옳아. 얘가 좀 크면 주겠다던… 가만있자, 그걸 어디다 건사했던가. …》

잠시후 곽영세가 찾은 인형을 흔드는데 경쾌한 음악이 울렸다. 진동하면 자연 노래가 나오게 되여있는 인형이였다.

미연이도 신기한듯 인형을 손에 쥐고는 《응흥, 응흥…》 하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러다 입에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의 얼굴에 비벼대기도 하고…

그럴 때 별안간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아, 순지로구만. … 뭐 뭐라구?! 명구가…》

전화를 받는 곽영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왔다.

《끝내… 응, 알겠소. 내 이제 곧…》

그러고도 놓은 전화기를 지그시 누르고 욕을 먹은 사람모양 머리를 깊이 수그리고 황소숨을 톺는 곽영세다.

《무슨 일이예요? 순지 남편이…》

남편의 기색을 살피며 라윤경이 불안함을 비쳤다.

대답대신 씩씩거리는 남편의 어두운 행동에 라윤경의 얼굴이 갑자기 긴장해졌다.

2

땅거미가 슬그머니 기여드는 마가을의 저녁이다. 량옆 야산사이를 가로지른 도로가 부옇게 안겨들고있었다. 안개가 아니였다. 쉴새없이 이어지는 차들의 배

기가스로 인한 어슬녘의 광경이고 대기여서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코, 입을 막게 한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황혼에 대항하려는지 아니면 숨막히는 공기속을 바삐 빠져나가려는지 마치 뱀비늘모양의 각양각이한 색갈의 차들이 불에 덴듯 급하게들 오고갔다.

그런 속에 술을 마신 사람마냥 방향과 속도가 정상이 아닌 승용차 하나가 눈에 안겨든다.

그 차안에서 별안간 새된 녀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신차리세요. 차를… 아이참, 차를 세워요!》

그러자 승용차가 도로 한옆에 맥없이 멈추어섰다.

차가 얼마나 비틀거렸던지 오가는 차들의 겁스러운 경적소리가 귀를 자극했다. 차를 몰고 지나치며 어떤 운전사는 알지 못할 고함을 질러댔다.

그에는 아랑곳없이 조향륜을 부스러뜨릴듯 잡고있던 곽영세는 거기에 머리를 푹 박았다.

《너무 괴로워말아요. 예서 좀 진정하고 가요.》

라윤경이 진정된듯 한 어조로 안고있는 미연이를 추스르며 남편에게 나직이 건넨 말이였다. 하고서는 그 말로도 부족함이 있는듯 앞좌석 남편의 등을 어

루쓸어주었다.

그들은 지금 대학동창이며 친구인 함명구의 장례에 다녀오는 길이다. 곽영세부부와 함명구부부는 다같이 대학동창들로서 오랜 기간 친분을 두터이 하여온 사이였다. 헌데 함명구가 결혼후인 약 2년전부터 원인모르게 시름시름 앓아왔다. 페염이라고 했다.

곽영세네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색짙은 얼굴로 축하한다며 전자인형을 기념으로 들고 왔던 명구부부였다. 그런데 그런 딱친구가 끝내 세상에 손을 저은것이였다.

《내가 그이를 잘 돌보질 못했어. 그렇게 페에 좋다는 가습기살균제를 글쎄 왜 미리 쓰질 않았겠니.》

이것은 함명구의 안해인 리순지가 장례식에 찾아온 라윤경과 마주앉아 터놓은 토로였다. 순지의 말이 한 1년전부터야 가습기살균제를 써왔다는것이다.

《진작 병초기부터 썼으면 이런 변이 없었을걸.》 한것이 순지의 후회였다.

친구를 잃은 곽영세는 몹시도 서글프게 울었다. 그들의 친분관계는 비록 자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사이라도 서로 바쁜 모퉁이를 메꾸어주는데까지

미쳐있었던것이다.

이런 생각에 집착하며 남편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던 라윤경은 더이상의 말을 꺼낼 용기를 잃고말았다. 남편의 심정으로썬 그럴수밖에 없을것이였다.

안타까움과 한숨속에 가긍해진 리순지에 대해 떠올려보는 라윤경의 머리속에 살균제를 뿜는 가습기가 떠올랐다.

가습기살균제, 1990년대 중반부터 남조선전역에서 가정용가습기에 방안소독을 목적하여 보충액으로 살균물질을 첨가해 리용해오고있었다. 사용과정에 폐염을 비롯한 호흡기질병에 특효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지면서 명소독제로, 명치료제로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었던것이다. 날이 가면서는 살균제첨가제의 가지수나 농도에서 다양성과 발전양상을 보였다. 처음에는 소독약냄새가 짙었는데 점차 오렌지향을 비롯한 각종 향료가 배합되면서 구매력이 늘어나는 판세다. 더우기는 《4대강사업》을 떠든 리명박《정부》가 자연과 환경을 들쑤셔놓아 페허나 다름없게 만들었기에 그에 기댈수밖에 없는것이 사람들의 환경대응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미연이 태여

난 이즈음에 와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여버린것이다.

직업자체가 의약품광고모델이니 그에 대한 소문에 앞서 확신감에 젖어있는 라윤경이였다.

라윤경이 한숨을 길게 그으며 상념에서 깨여나 머리를 가로젓는데 곽영세가 황소숨을 내긋다 답답해난듯 차창을 내리우는것이였다. 마가을철의 밤인지라 씽한 밤바람이 차안의 온기를 아예 밀어낼듯 붕― 소리까지 내지르며 쓸어들었다.

라윤경은 순간적인 오한을 느꼈다.

잠든 미연이가 옴지락거리기에 윤경은 애를 제 몸으로 가려주며 말했다.

《진정하셔요. 그런다구 간 사람이 다시 오는것도 아니잖나요. 제발 맘을 가라앉히셔요.》

안해의 이 말에 곽영세는 그제야 상체를 돌렸다. 그 눈길에는 애절함이 비껴있었다.

《워낙 너무도 맘이 착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빨리 갈줄은…》 하고 곽영세는 울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라윤경은 조용은 해도 감정을 숨길줄 모르는 남편

의 성정을 잘 알기에 저로서도 침울한 기색속에 말없이 눈만 끔벅여보였다.

임대했던 승용차의 사용처리를 하고 조금 걸어 자그마한 단칸집에 들어선 그들은 옷 갈아입을념도 잊고 안락의자에 몸을 내맡겼다.

불을 켰다고는 하나 한적하고 어둑침침한 방안엔 침묵만이 무직하니 떠돌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아보였고 안온해보였던 집이였다.

라윤경은 새삼스레 집안을 휘둘러보았다. 비록 세를 낸 집이기는 해도 생활의 터인것이다. 본가에서 물려받은 낡은 가구들이 비좁게 차지한 방을 둘러보는 그의 입으로는 저도 모를 한숨이 새여나왔다.

이제 살림을 어떻게 개척해야 하겠는지. 아이는 낳았다고 하지만 키울 일이 아뜩했고 점점 크면서는 그 부담이 확대될것이였다. 물론 어머니는 자식의 노예라는 말도 있지만 왜선지 걱정만 앞서는것이였다. 남편의 말이 지금 중산층을 비롯한 사람들의 생활이 하강선을 긋고있다고 했다. 정치든 경제든 상관할바 없다고, 남편과 손잡고 부지런히 버느라면 해들 날이 있을것이라고 상상해오며 버티여내는 윤경이였다.

하지만 생활은 나날이 쪼들리기만 했고 그로 해서 어떤 때는 결혼 그자체가 후회되기도 하는것이였다. 그래도 그 기간에 함명구의 도움도 있었기에 그럭저럭 살림을 유지해온 그들이였던것이다.

호— 하고 라윤경은 맥없는 숨을 내불었다.

(좀더 참느라면 과연 이 집안에도 해들 날이 올가?)

력대로 민생문제를 선차적문제로 중시한다고 기염을 토하던 《정부》였다. 현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녀성이라는 점, 달콤한 공약으로의 《경제부흥》시대를 제창한 점에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나아지는것은 꼬물도 없다. 오히려 불만이 확산되고있는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숨을 흘린 라윤경은 남편이 안고있는 딸 미연이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댓달후면 애 돌인데… 어떻게 할가? 애아버지가 최근에 들어와 피우지 않던 담배만 말없이 뻑뻑 태워대는걸 보면 분명 일이 잘 안되는 눈치야. 갓 제약회사에 입직한 내 수입은 더욱 어려운것이고…)

잠자리에 들었어도 라윤경의 머리에는 함명구와 불쌍한 순지의 생각과 함께 자기들의 앞일도 불안속

에 갈마들었다.

이러루한 생각으로 뒤채기다 언제 잠에 떨어졌는지.

캑캑 소리에 라윤경이 눈을 떴는데 잠들어있던 미연이가 애처롭게 기침을 깇어대고있었다.

윤경은 머리맡의 조명등을 켜고 근심어린 눈길로 침대결의 요람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곽영세도 몸을 일으켜 딸쪽에 얼굴을 내밀었다.

미연이가 눈을 번쩍 뜨고 수수떡처럼 상기된 얼굴로 엄마, 아빠를 살피는것이였다. 그러더니 아예 내장을 끄집어낼듯 한 기침을 하며 《으앙!―》 하고 고성을 울린다. 그러다가는 또 기침을 하고…

3

《급성은 아니군요. 일반 페포성이예요. 큰 소견은 없는걸요. 사실 말해 페염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열감도 느껴지지 않구요.》

흰 위생복을 걸친 중년의 녀자가 청진기를 책상우에 놓으며 라윤경에게 한 말이였다.

이상하게도 라윤경은 직업적예민함의 시야로써 의

사를, 아니 그가 쓰고있는 위생모밖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에 눈길이 쏠리는것을 피할 길이 없었다. 이남《한》땅에서라면 어디서나 볼수 있는 염색풍이였지만 불색물감을 들인 의사에게서 어쩐지 까닭모르게 실망감이 느껴진때문이였다. 본래의 검은머리였으면 아름다와보였을걸 하는 생각에 윤경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금시 몸을 궁싯거렸다. 그는 윤경의 시선에서 그것을 눈치챘는지 남자처럼 한쪽입귀를 씰룩하고는 위생모를 꾹 눌렀다놓았다. 그리고는 불쑥 애한테 인공젖을 먹이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라윤경의 겉옷주머니로 내밀어진 애기젖병을 본 모양이였다.

《어디 좀…》

라윤경이 내민 젖병을 한참이나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던 의사는 《될수록 이 상표의 제품은 쓰지 않는게 좋겠어요.》 하며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어째선가고 라윤경이 물으려는데 의사는 야유나 하듯 지시손가락으로 젖병을 다독이며 말하는것이였다. 《비스페놀－A》성분이 들어있는데 설명을 하자면 길다면서 좌우간 화학물질이여서 사용하지 말라

고 말하며 창문쪽에 눈길을 주었다.

《뭐, 그런 일이 이뿐이라고요. 요새는 무서워요. 에ㅡ 그런 얘긴 그만두고… 애는 다른게 없겠어요. 찬바람을 쏘인것 같군요.》

미연이의 옷을 여며주며 라윤경은 피끗 전날 밤 신경이 예민해진 남편이 차창을 여는 바람에 애가 찬바람을 쏘인탓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요행 큰병이 아니라니 마음이 놓이는것이였다.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예, 그런 일이 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라윤경이 미연이를 안으려 했다. 헌데 말을 마친줄 알았던 의사가 손짓으로 앉을것을 요구하는것이였다.

《가습기살균제, 흔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걸 써본건가요? 호평이 대단하던데…》

라윤경은 의사의 말에 머리를 가로저으며 직접은 못써보았다고 했다.

《아마 애한테는 적격일걸요. 한번 써보세요.》

방금전 화학물질이 어떻다고 하던 의사였기에 의아히 그를 쳐다보던 라윤경은 이내 얼굴색을 달리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함명구의 가긍한 모습과

함께 설음에 흐느끼던 순지의 얼굴이 스치는것이였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그… <옥시>정도면 되겠지요?》 하는 반가움이 담긴 라윤경의 말은 물음이 아닌 결심으로 들렸기에 의사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고작… 그건 용적이 오백미리리터밖에 안되는걸요. <옥시>보다도 천미리리터짜리 <PB>나 <NM> 같은게 보다 효과적일걸요. 오렌지향을 뿌려주는게 좋더라구요. 그러니 집안공기도 그래, 애 치료도 그래, 좋으면 좋았지 나쁠거야 있을라구요.》

그러면서 의사는 체적이 큰 가습기살균제를 쓰면 호전이 빠를거라고 덧붙이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 순지 남편의 전철이 답습되지 말아야 해.)

신심어린 얼굴로 알겠노라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온 라윤경은 집으로 향했다. 마음은 마냥 들뜨는듯 했다.

그가 한창 걷고있는데 손전화기 신호음이 울렸다. 남편이였다. 생각대로 미연이가 걱정되여 걸어온 전화였다.

라윤경은 병원에 갔던 결과를 요약해 설명해주고

큰병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의사의 권고대로 미연이에게 가습기를 사 달아줄 의향을 비쳤다.

곽영세는 《감기정도에 그런것까지?!》 하고는 자기 어성이 높아졌음을 직감했던지 어눌한 어조로 바꾸어 일반감기약이 어떤가고 했다.

라윤경은 함명구의 경우를 잊지 말라고 뱉고싶은 생각을 겨우 삼키고있었다.

동안이 지나서야 《정 그럴 생각이면… 감기약을 써보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때 가서 보자구.》 하는 뜨아한 남편의 목소리를 라윤경은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한숨속에 들었다.

곽영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안해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생각되였던 모양인지 《됐어, 저녁에 토론해보자구.》 하고 변명조의 한마디를 보탰다.

남자들이란 만사에 저렇듯 태평하다는 생각에 라윤경은 머리를 가로젓다가 가볍게 웃었다. 크지 않은 일로 가정분위기를 깨고싶은 생각이 없었던것이다. 어쨌든 자식을 걱정하여 전화를 걸어준것만으로도 윤경은 기뻤다. 그는 기분을 의식적으로 띄우려고 코노래를 떼기 시작했다.

우리 아가 어서 커서
무량한 기쁨 되여다오
…

그런데 이때 손전화기 신호음이 또 울렸다. 그가 다니는 헬스제약회사 사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라윤경은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이미 아침에 애가 갑자기 앓아 출근을 못하겠다고 전화로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던 상태였던것이다. 출근을 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에 미안한 생각으로 겨우 말을 뗐던 터라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몇마디 하고는 이내 통화를 끊었다.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젠 별도리가 없었다.

4

라윤경의 심정은 다소 착잡했다.

간밤에 남편과 미연이의 치료를 위한 가습기구입과 관련한 론쟁을 한것이 마음에 걸려서였다.

곽영세는 머리만 기웃거리다 《감기쯤에 왜 꼭 그런걸 쓰자고 그래? <견문발검>격이 아닐가?》 하며 반대의향을 비쳤다.

하지만 라윤경은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곽영세는 궁극에 실퉁한 어조로 《좋아, 하지만 사나흘만 써보자구.》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쓸걸 꼭 사야겠는가며 남의걸 좀 빌려쓰면 안되겠는가고 했다.

돈걱정을 하는 남편의 심정을 몰라서는 아니였지만 라윤경은 이따금 미연이도 그래 또 앞으로도 리용할 일이 반드시 있을거라며 기어코 샀으면 하는 의향을 꺾지 않았다.

그에 곽영세는 달갑지 않은듯 한 얼굴로 안해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라윤경은 기쁜김에 대답대신 남편의 팔을 쑥 당겨 뱄다.

(미안해요. 아이를 위하자니 어쩔수 없군요.) 하고 생각하는 라윤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날이 밝은지 얼마 안되여 유모차를 앞세우

고 가습기를 사려 집을 나선 걸음이였던것이다.

얼마 걷지 않았는데 상점과 야외매대들이 나졌다. 냄새부터 향긋한게 가습기매대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었다. 확실히 자기네 헬스제약회사보다 모양도 체적도 향기도 독특한 가습기와 살균제들이 많았다. 가지수만 하여도 십여종은 잘될것 같았다. 광고 또한 요란한지라 사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였다. 외국산이 더 많아보였다.

라윤경은 후련함을 느꼈다. 애의 병이 곧 가셔지리라는 기분에 흥분되고있음을 의식해서였다. 미연이가 건장한 모습으로 반기는 모습이 눈앞에서 얼른거려 마음은 마냥 흡족해나는것이였다.

《같은 값이면 향긋하고 체적이 큰걸 사야겠어. 너도 좋지, 요 순돌이?》

유모차에 누운 딸애에게 허리를 굽히며 저도 모르게 나간 말이였는데 왜서인지 애한테 신통히 어울리는 애칭이라고 자부되는것이였다. 배만 부르면 울지도 않았고 그 전자인형만 있으면 혼자서도 곧잘 노는 미연이인데야.

불쑥 튀여나간 라윤경의 혼자소리에 미연이가 별

떡 눈을 뜨는것이였다. 그리고는 곱이 껴 말라붙은 눈을 뜨느라 얼굴을 찡그렸다.

라윤경은 제꺽 딸의 옷 앞섶에 매단 수건으로 눈을 문대주려 했다. 미연이가 얼굴이 지지벌겋게 변하며 울상을 지었다. 또 줄기침이 시작되려는 모양인가.

아닌게 아니라 침방울을 튕기며 미연이의 작은 몸통이 거퍼 진동한다.

덴겁을 하며 라윤경은 미연이의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랬으나 즘즉해지기는커녕 이번에는 기침으로 내장이 긴장해진 애가 먹었던 젖까지 토해낸다. 인형을 흔들어 노래를 들려주었건만 오히려 부담스러운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어서 사자! 이제 우리 《희망》이의 병이 씻은듯 나을거야!)

라윤경은 몸을 돌려 직방 가습기매대로 다가갔다. 좀 비싸더라도 외국산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는 코트주머니에 손을 질렀다. …

라윤경은 막 날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걸었다. 고

대하던 가습기와 살균제를 드디여 산것이다.

이때 《아암마—》 하는 미연이의 가랑가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라윤경은 엄마를 찾는 딸애의 첫 목소리여서 그들먹하니 차오르는 모성애를 느꼈다. 그리고 다른 애들에 비해 확실히 미연이의 발육이 빠르다는 자긍심이 안겨들었다. 하지만 미연이가 이내 줄기침을 또 하기 시작하자 순간의 기쁨마저 사그라들며 마음이 알알해왔다.

유모차를 세우고 딸애를 보니 목에 가래가 걸렸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볼과 입술이 튀여나올듯 했다.

《오냐, <희망>아. 이 엄마 내 생각만 했구나. 어서 가자. 가서 가습기를 제꺽 설치하자꾸나.》

걱정이 앞섰지만 아이들이 크느라고 앓는다는 말을 들어온지라 마음의 안착이 곧 생기는듯싶은 윤경이였다. 그러면서 애가 《아암마.》 하고 찾던 생각이 기쁘게 새겨지는것이였다.

《호, <아암마>가 뭐야… 엄마지. 엄—마—》

라윤경은 애써 불안을 밀어내며 젖비린내 배인 미

연이의 포동포동한 우유빛손가락을 입술로 살짝 물어주었다.

5

가습기를 가동시킨지 두달은 잘된다. 소중한 기쁨이였다. 라윤경은 기분이 둥둥 떠있었다. 조금은 새근거리긴 해도 편히 노는 딸애를 보며 벙글한 미소를 거둘줄 몰랐다. 구석에서 알락무늬의 가습기가 뿜는 귤냄새가 방안을 향긋이 채웠다. 미연이가 인형을 안고 기분이 좋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며 혼자 놀고있으니 그 기쁨을 더 말해 무엇하랴.

《이 좋은걸 글쎄 당신은…》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자 밥상을 차리며 라윤경이 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채 한 말이다.

《글쎄…》 하고 곽영세가 응대는 했으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다.

《<장미>, 그… 이제 말이요. … 이쯤됐으면 가습기를 거둬도 되지 않을가. 미연이도 이제는 편해하지 않소.》

수저를 든채 곽영세가 딸을 바라보며 말하는것이였다.

《한 보름정도만 더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오래간만에 깃든 집안의 웃음소리가 소중하기에 라윤경은 흥에 떠있었다.

《사나흘이 두달을 넘겼는데 또?》

라윤경은 미소를 거두고 그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섭섭했다. 남편도 마음속 고충이 크리라 리해하며 오늘까지 왔는데 오죽했으면 내가 힘들여 겨우 들어갔던 제약회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을가.

라윤경은 한숨을 지으며 수저를 들었다.

《됐어요. 어서 식사를 하시자요.》 하고 안해가 말했는데도 곽영세는 못 들은듯 딸애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안해를 피끗 보고는 머리를 떨구었다.

라윤경은 수저를 살며시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 짐이 다 미연이 아버지에게 지워졌으니 힘드시죠?》

그러자 곽영세가 숙였던 머리를 번쩍 들었다.

《아니요. 내가 걱정하는건 저 살균제라는거요. 명구

가 단명한것두 왜선지 저것탓이라 생각되거던. 순지가 저걸 좀더 일찌기 명구에게 달아주었을걸 하구 후회했지만 실은 내가 이미전부터 반대를 해왔던거요. …》

라윤경은 미연이에게 살균제사용을 반대해온 남편이 충분히 그럴수 있으리라 생각되면서 좀전에 한 자기의 말에 멋적어지는것을 느꼈다.

《헌데 명구가 어찌되였어, 1년동안이나 썼는데 효험이 있었어? 난 그게 두려워 그랬던거야. 생각해보오. 감기정도에 저걸 쓰인다는게… 아니, 정말로 난 반대야.》

윤경은 저도 모르게 머리를 숙였다. 여직 이토록 말을 많이 해본적 없는 남편이였다. 더는 말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균제사용은 자기의 수완이면 걱정이 없을듯 했다.

《아이, 국이 식겠네. 어서 식사를 하시자요.》

안해의 말에 곽영세는 어줍게 허허 웃어넘기고말았다. …

다음날은 일요일이여서 잠든 딸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겨둔채 그들부부는 잠간 바람을 쏘이려 집을 나섰다. 애가 찬바람을 맞게 될가 두려워서였다.

미연이가 피여나기 시작하니 집안일도 잘되리라는 락관이 그들의 마음에 서서히 자리잡고있었는지도 모른다.

라윤경은 남편의 팔을 슬그머니 잡았다. 곽영세는 안해의 손이 끼워진 팔을 제 몸에 꼭 붙이였다. 라윤경은 무아경속에 든 기분이였다.

《이렇게 걸어본지가 퍼그나 오랬지?》

라윤경이 즐거이 남편을 바라보는데 확실히 얼굴색이 그전과 달리 한결 밝아보였다.

(이래서 부부다툼은 칼로 물베기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온몸이 따스해지는감을 느꼈다.

이때 손전화기의 호출음이 울렸다. …

가습기에서 뿜는 귤향기가 은근한 공기와는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지꿎은 정적을 리순지가 조용히 밀어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효험의 치료기는 아닌것 같아. 이전에 미연이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도 되고…》

리순지의 이 말에 머리를 소곳하고있던 라윤경이

고개를 쳐들었다.

《난 그렇게 보이질 않아. 너도 말했잖아, 네 남편이 너무도 늦게 가습기살균젤 썼노라구!》

목이 타드는듯 침을 꿀꺽 삼킨 리순지가 라윤경의 의문스러운 말에 얼굴이 벌개지며 웨치듯 말했다.

《그래, 그땐 그랬어. 사실 미연이 아버지의 권유에 오해까지 가졌던 나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저 살균제가 우릴 속이고있거든… 아니면 우리가 속히우고있든가!》

곽영세가 이내 얼굴에 긍정의 빛을 띠웠다.

라윤경은 그러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순지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무리 친구지간이래도 오늘만은 왜서인지 순지가 부담스러워진다. 남편과 오랜만에 다리가 아파날 정도로 걷고싶었던 그였다. 그런데 불쑥 순지가 만나자며 전화를 걸어왔던것이다. 거기에다 그리 달가와하지 않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겨우 쓰고있는 가습기살균제가 어쩌고저쩌고하니 고까운 마음을 겨우 누르고있었다.

《벌써 미연이가 아홉달에 잡히겠구나.》

문득 순지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생각에 묻혀 반응없는 안해를 대신하여 곽영세가 순지에게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예에— 그러니 두달… 두달이상을 이것으로…》

리순지의 이번 물음에도 역시 곽영세가 고개로 대답했다.

《두달… 두달…》 하고 외우고 남자처럼 후— 하고 길게 숨을 내뿜은 리순지는 수심에 잠긴듯 한 얼굴로 두손에 포개고있던 자그마한 가방안에 손을 질렀다.

라윤경은 속으로 대체 오늘 왜 이러는걸가 하고 바재이며 순지의 손길을 쫓았다.

《글쎄, 꼭 그렇다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말이야. 왠지 난 그 살균제에 믿음보다 의심이 더 생기는구나. 이걸 한번 보렴.》

라윤경은 순지가 펼쳐 내미는 잡지에 눈길을 박았다. 곽영세도 안경을 내의에 대충 문대고 끼더니 윤경과 머리를 맞댔다.

《그렇게도 평이 좋고 수요가 높아 수백만대이상의 판매기록을 냈다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비발치기 시작했다. …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

해가 머지않아 이 사회를 뒤흔들게 될것이다!…》

라윤경은 쥐고있던 잡지를 떨구고 귀를 막았다.

공기가 쭉 빨려나가는 체감으로 윤경은 자세를 힘겹게 유지하며 흐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악몽이라 생각되지 않니, 그 살균제라는게? 내 그래서 급히 만나자고 한거야.》

순지의 말에 라윤경은 애써 몸을 지탱하고있는데 식은땀이 등골로 흘러내리며 간지럽혔다.

《우리 외삼촌이 나더러 보라고 주시더구나, 여기 환경시민쎈터에 다니시는… 너도 알지 않니. 그분이 이걸 나한테 주신걸 보면 아마 내 남편의 사망과 련관시켜보라는 의도인것 같기도 하더라.》

그에 고개만 끄덕일수밖에 없는 라윤경이였다. 한편 생각은 오리무중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인가 순지가 외삼촌이란분의 특이한 성격에 대해 들려준 말이 떠올랐다.

워낙 토법을 중시하는 순지 외삼촌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수년을 경과한 뒤에야 조심히 눈길을 주고 만지작거리는 성미라고 했다. 그는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꼭 자기 안해가 만들어주군 한다고 했다.

공업적방법으로 만드는 막걸리에는 인공감미료와 화학첨가물이 일여덟가지나 들어가기때문이라는것이다. 물론 화학물질이라고 다 인체에 해로운것은 아니지만 그렇대도 한번에 섞어서 리용하는 경우 독성분이 생성된다고 그는 믿고있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모기장을 치거나 쑥을 태우는 한이 있어도 모기향이나 분무식살충약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이지간에야 귀를 기울이게 되였다는 순지의 외삼촌인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런 자료에서 무엇을 생각하였겠는지야 불보듯 뻔한게 아니겠는가.

하지만 라윤경은 절로 도리머리를 했다. 사람마다 자기가 싫어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되여있는것이다. 그러고보면 순지의 외삼촌이란분도 그런 부류의 사람일것이였다.

라윤경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내 말 한번 들어보렴.》 하고 순지가 말하였다. 그의 말엔 어딘가 비애가 슴배여있는듯 했다.

《외삼촌이 들려주신 얘기란다. 그분의 말이 얼마 전에…》

…이 지역 환경시민쎈터에 다니는 순지의 외삼촌인 허씨는 며칠전에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자료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에 각각 제출했다. 그는 문건에 당국에서 이 문제를 료해해야 하며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었다. 요즈음에 와서 자기 조카사위의 사망원인도 가습기와 결부시켜보게 되는 허씨였다.

며칠후 보건복지부의 과장이란 사람이 그를 불렀다.

《어째서 당신은 민심에까지 걸어 그런 쓸데없는 문제를 여기저기 복잡하게 들고다니는거요?!》

허씨는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지긋이 참고 대꾸했다.

《우리 환경시민쎈터에 계속 제기되는 의견이기에 절차대로 한것인데요. 그야 나보다도 당국에서 더 잘 아실 일이지요. 국민의 생명안전을 놓고 그렇게 말씀해도 될가요.》

과장의 삼각눈이 쪼프려졌다.

《국민의 생명안전이라? 흐음… 대단한 인도주의자로군.》

그 말에서 모욕을 느꼈으나 허씨는 의외로 침착해

지며 앉으라는 과장의 말이 없었지만 안락의자에 가척 앉았다. 그리고는 한다리를 다른 무릎우에 올려놓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

《잘못 보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의 대학선배로 아는데요. 리청수씨, 초보적인 례대야 아셔야지요. 심장은 머리보다 아래부분에 있어도 그것 없이는 못산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와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좀더 우에다 제기하는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허씨가 들이대자 삼각눈을 흠칠 떨던 과장은 어줍게 웃었다.

《아, 제가 눈이 나빠진탓이라… 용서하시오.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변명한 과장이 손으로 이마를 문다지고 헛기침을 했다.

《우리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외국회사들에서 만든 설비들에서 그… 일정한 의견이 생겼다는걸 말입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 일체의 설비판매를 중지하였고 또 일부는 다른 사정으로 본국으로 빠진 상태라…》

과장은 저로서도 안타깝다는듯 두손을 벌려보이며

사정조로 말하였다.

《허, 그러니 그들의 얼굴을 봐주어야 한다, 그거요?… 민심이 두렵지 않으시오?》

《복지부에서두 이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나 론의가 있었지만 워낙 외국회사들과의 신용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허씨의 귀에는 이미 과장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가슴이 저려왔다.

사망자만 10여년어간에 칠백명을 넘었으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 결국 자기의 조카사위도 그 희생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과장의 아닌보살하는 태도를 보면 이가 갈려진다. 그렇다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허씨는 돌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장이 마른침을 삼키며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하며 놀란다.

《공연한 시간랑비란 생각이 드오. 그런 오그랑수는 국민의 구설을 면할수 없소.》

《그… 그러니 어찌겠다는건가요?》

《해결방도를 찾아야지요, 과장님.》

돌아서려는 허씨를 과장이 아예 두팔벌려 막아나섰다.

《선배님, 이거 자꾸 모나게 이러지 마십시오. 자, 좀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과장은 허씨의 두팔을 꼭 잡아 자리에 앉혔다.

《우리들끼리니 털어놓고 말해봅시다. 력대로 우리 <한국>이야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대외의존도가 우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색으로 허씨는 과장을 주시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사회에 여론화해보십시오. 우리가 법처럼 원칙으로 지켜오는 관례에 손상을 주어 외국의 회사들이나 투자가들의 기분을 건드려보란 말입니다. …》

《그래서?》

《고려할수밖에 없다는 말로 리해해주십시오. 허선배님도 아시다싶이…》

《여보시오!》

《?!…》

《쓸개빠진 놈같으니라구!》

허씨는 안락의자가 밀리는 소리를 내며 성큼 일어섰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출입문으로 향했다. …

순지는 말을 마치고도 한자세로 미연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아니, 한쪽구석에서 돌아가는 가습기를 노려보고있었다. 그러다 그는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윤경이였다. 가습기를 만든 회사들은 그렇다치고 의사들까지도 자신있게 건의하는 가습기살균제가 아닌가, 골골하던 미연이가 신비하게 나아가고있는것도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집요하게 마음의 자락을 잡아당겼다.

6

라윤경은 남편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순지가 오기 전때와 달리 전혀 감흥이 없는 산보였다.

집을 나서 묵묵히 한 오륙백메터정도를 걸었을가. 그들 걸음이 멎어섰다. 저쯤에서 사람들이 몰켜서 도로를 메우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들의 발길이 약속한

듯 그리로 옮겨졌다.

인도쪽 한 건물의 계단에 올라선 중년의 남자가 뭐라고 소리치는것 같았는데 잘 들리지는 않았다. 그 사람은 손에 마이크까지 쥐고 서있었다. 비장한 모습이였다.

《…절대로 쓰지 마세요!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거던요! 바로 내… 내 안해가 그로 해서…》

겨우 알아들을수 있는 사나이의 목소리였는데 기자들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한테 마이크와 록음기, 사진기를 가져다대고있었다.

라윤경과 곽영세가 귀를 기울이고 듣자하니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안해가 죽었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라니, 저 사람의 안해가 그것때문에… 그 소리지?!…》

덴겁한듯 곽영세가 웨치듯 말하고 생각키우는것이 있는지 후닥닥 인파에 깊이 섞여드는것이였다. 라윤경도 자석에 끌린듯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사람들속을 비집고 겨우 앞쪽에 다달아보니 중년의 사람은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던지 잠시 말을 멈추고 머리를 숙이고 떨어대다 다시 드는

것이였다.

《그… 바로 그 가습기를 집사람이 즐겨 쓰군 했었습니다. 그거였죠. 그것이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한거죠. 치료에 좋다기에 애용했는데 그게 저세상사람으로 만든겁니다. 그것을 만든 회사들은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아닌보살하고있습니다. 대체 누굴 탓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합니까? 접니까, 우리 집사람입니까?》

사람들속에서 여럿이 눈굽을 훔치였다. 라윤경의 눈가에도 물기가 고여들었다.

라윤경은 막 가슴이 미여질 지경이였다. 두달 남짓한 동안 신기하게도 애가 탈없이 잘 노는것이 가습기살균제의 덕이라고 여겨왔었다. 하지만 요즈음에 와서 미연이가 얼굴이 벌개지고 태를 치면서 가끔 피를 토하군 하는것이 아닌가. 점점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뿌리치기 힘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안해의 한쪽어깨를 감아쥐고 고개를 떨군 곽영세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굳어져 미동이였다.

그날 밤 라윤경은 미연이를 안고 근처의 병원에 입원했다. 애처로울 정도로 신약들이 미연이의 입으로, 피줄로, 연한 살속으로 사정없이 퍼부어졌다. 그간 어지간히 피여났던 미연이의 포동포동하던 살은 어디에 갔는지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지고말았다.

《암마, 아브… 아브…》

아프다는 말을 아홉달이 지나 하는것이지만 라윤경은 기쁜 마음을 전혀 느끼질 못하였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솟구쳤다. 애가 눈자위를 뒤집을 때는 무섬증이 나기도 했다.

사흘이 지나서는 눈물도 말랐는지 더는 나오지 않았다. …

라윤경이 정신을 차린것은 한낮이 거의 기울무렵이였다.

슬며시 눈을 뜨던 그는 습관적으로 한팔을 옆으로 내밀었다. 다음순간에는 번쩍 눈이 커지더니 몸을 일으켰다. 미연이, 딸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눈앞에 남편이 있었으나 그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듯 실성한 사람모양 이불을 들추며 헤덤벼쳤다.

남편이 태질을 하는 윤경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돌렸다. 이럴 때 진동의 여운으로 베개곁에 자빠져있던 인형이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다.

버럭 눈길을 인형에게 박던 윤경은 와락 그것을 집어들어서는 높이 쳐들었다. 당장에 집어내칠듯 하던 인형을 이번에는 얼굴에 당겨 비벼댔다.

《내가 결국… 내가 우리 미연일… 아, 미연아!―》

사랑하는 딸 미연이는 태여나 열달도 못 채우고 세상을 등졌다. 단란한 가정의 행복이였고 미래였고 기쁨이였고 그들의 희망이였다. 하지만 더는 볼수 없는 딸이며 아무것도 기대할수 없는 가정의 앞날이다.

《미연아!―》

라윤경은 머리를 침대우에 털썩 박으며 울음을 터쳤다.

곽영세가 말리려 윤경에게 다가들려는데 그를 지켜보던 리순지가 제지시키는것이였다.

《놔둬요, 한껏 울게…》

그 말에 윤경이 번쩍 올려뜬 눈으로 순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출입문으로 향했다.

남편이 소리쳤지만 윤경의 귀에 닿지 않았다.

《윤경이!》

조용히 부른 순지의 목소리였는데 천근무게처럼 울린 까닭에 라윤경은 무춤했다.

《이 지역… 아니, 이 남<한>사회를 둘러보렴. 지금 가습기살균제피해가 전역을 휩쓸고있어. 마음을 놓고 숨도 쉴수 없는 땅이야.》

리순지의 그 말에 왜선지 라윤경은 숨이 꺽 막혀 오는듯싶었다. 그는 될수록 진정하자고 애쓰며 가슴을 부여잡고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방안에 산소가 부족한듯 답답해나기만 하는것이였다.

《숨… 숨이… 안 쉬여져!》

남편과 리순지가 그러는 라윤경을 부축하고 침대에 다시 눕히려 했다. 라윤경은 누우면서도 미연이의 인형을 찾았다. …

× ×

콤퓨터 문서화면에 《희망을 찾는다》라는 제목글을 큼직하게 올린 라윤경이 모아세운 두손등우에 턱

을 고인채 점도록 책상우의 인형을 바라보고있었다. 한참이나 그러더니 무엇이 생각났던지 자세를 바로하고 콤퓨터의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만들줄 모른다. 써본적도 없다. 하지만 이 땅에,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고발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기에 마음을 굳게 도사려 책을 쓰리라 작정을 한것이다.》

여기까지 쓰고난 라윤경은 인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미연이가 해쭉인다. 복스러운 얼굴에 포동포동한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자꾸 매만진다.

라윤경의 두볼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에는 아랑곳않고 그는 다시 콤퓨터건반우에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우리 부부는 《민생의 행복시대》를 외워온 《정부》에서 우리 가정의 희망과 미래를 잃었다. 우리는 목이 터지도록 땡볕에서, 추위속에서, 비속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시위도 했고 고소도 해보았다. 하지만 《정부》란것은 얼음같이 차거이 외면해버렸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등록도 해주지

않고있다. 우리의 요구는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 투쟁할것이다.

이 땅은 민중에게 너무도 험상궂고 이지러진 모습만을 망막에 남기고있다. 물고기가 대가리부터 썩는다는 말이 그른데 없다.

지나간 세월은 상상만 해봐도 정말로 불안하고 숨막히는 시기였다. 마음을 놓을수 없는 땅이고 편히 숨쉴수 없는 땅이다.

이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얼마나 늘겠는지, 또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성취되겠는지.

국민의 생이라고 어찌 짜디짠 소금물만 마셔야 한단 말인가. 어째서 계속 갈증만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가. …

숱한 애들을 바다속에 수장시켜놓고도 늙마에 주름투성이가 뭐가 그리 고민거리였던지 제 얼굴치장에 일곱시간동안이나 바친자가 누구였던가. 《4대강사업》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마구 헤집어 공기와 물을 흐려놓았고 살균제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웨침을 외면한자가 과연 누구였는가. 인정과 사랑을 입닳도록 표방해온자들, 국민을 위하고

《따뜻한 사회건설》이라는 그 말에 속아 투표했건만 락인하건대 모두 사람의 면사포를 쓴 악녀, 악마들이였다. 민중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개돼지로 치부하는 이 사회에 과연 희망이라는것이 있을수 있겠는가. 있다면 그날은 과연 언제인가.

이 땅을 페허나 다름없이 들쑤셔놓고 저들의 탐욕과 치부에만 급급해하는자들, 《정부》의 체면고수와 외국회사들의 비위맞추기에만 몰두하면서 자기 국민의 생명 같은것은 제 발뒤꿈치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자들은 응당 법정에 올라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곰팽이균들이 무성하게 번식하고있는 이 풍토, 이 사회를 우리는 심판해야 한다. …

여기까지 쓰고난 윤경은 일어나 창문에 다가섰다. 뿌연 대기속 저쪽에 희미해진 해가 빨리 사라지고싶은듯 야산쪽에 드리우고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던 윤경의 입에서 조용히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연이를 잃은 후 남편 곽영세가 개작한 노래의 구절이였다.

하늘나라 우리 《희망》

땅의 세상 아빠엄마
보고싶고 그리워서
매일마다 만나를 봐

시름과 걱정 눈물 털고
사악의 시대 밀어내
기쁨세상 도래할제
웃음속에 얼싸안으리
…

【가사】

무지개 핀 삼천리

박 장 길(재중동포)

한많은 분계선 가로 비낀
무지개 무지개 일곱빛 무지개
한끝은 북쪽에 한끝은 남쪽에 뿌리박고
꽃다리 무지개 피여오른 삼천리
통일다리 무지개 손잡은 삼천리
둥근해도 북친다 노래하자 춤을 추자

소원을 꽃피워 솟아오른
무지개 무지개 둥그런 무지개
하나가 되여서 밝아올 래일을 마중하며
꽃대문 무지개 눈부신 삼천리
통일대문 무지개 한마음 삼천리
둥근해도 북친다 노래하자 춤을 추자

【가사】

삼천리 통일강산 자랑하리라

한 동 해(재중동포)

천지물에 정기 비낀 백두산이요
백록담에 얼이 내린 한나산일세
금강산에 통일노래 울려퍼지니
삼각산도 너울너울 어깨춤 추네
아ㅡ 그리워라!
꿈결에도 안겨보는 고국산천아
삼천리 통일강산 온 세상에 자랑하리라!

월강곡에 목메이던 두만강이요
망향가에 흐느끼던 림진강일세
대동강에 통일노래 울려퍼지니
한강물도 출렁출렁 어깨춤 추네
아ㅡ 그리워라!
꿈결에도 안겨보는 고국산천아
삼천리 통일강산 온 세상에 자랑하리라!

【고전시】

옛 노래의 운을 따라

최 경 창(1539—1583)

일만가지 일이 서로 엉키고 소란하여
근심과 즐거움이 가지가지 많아라

부자가 되여도 부족함이 많다거늘
가난으로 어찌 마음이 편하랴만

뜻높은 사람은 속된 영화 버리고
초연히 세상일을 널리 살피나니

록을 탐내여 허리굽힘은 부끄러운 일
전원으로 일찍 돌아올지로다

힘들여 밭갈아 거두어들여도
주리고 추운것 면하기 어렵지만

안온한 땅우에도 풍랑이 일고
평탄한 길도 험난해지나니

세상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더러운 물욕에 말려들지 말아야지

밭가는 농부 때때로 찾아와
농사이야기로 서로 웃다가

그 농부 가고나면 해는 걸앉는데
쓸쓸한 사립문 닫아두리

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은들
내 이제 무엇을 탄식하리오

【작가일화】

《입이 없었기망정이지…》

권필(1569－1612)이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길가까운 곳에 한무리의 사람들이 몰켜서서 벅적 떠들어대며 웅성대고있었다.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펄럭거리는자들도 몇명 있는것으로 보아 량반족속들이 틀림없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아니나다를가 몇명의 량반들이 인부들을 몇명 동원해가지고 높은 벼슬아치들이 죽은 뒤 그의 행적을 새겨 세우는 신도비를 세우느라고 떠들어대고있었다.

권필은 아무말없이 비문에 새겨진 글줄을 더듬었다. 비문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엔 뛰여난 자질에, 높은 학문에 임금에게 충성하고 강직하며 집에서는 효도하고 인자하였고 뢰물이란 거들떠보지도 않아 창고속은 텅 비여있고 말은 능히 세상에 법이 되고 행실은 사람

들의 사표가 되였다. 마땅찮은 일 하나도 없기에 이처럼 비에다 새겨 길이길이 전하노라.》

읽어내려가느라니 입에서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피여올랐다.

(흥, 벼슬아치들 치고 도적놈이 아닌게 있나? 그래가지고도 효도? 인자? 뢰물? 참 가소로운 일이로다!)

그때 아까부터 권필의 행동을 이상스레 지켜보던

세계작가일화

작가와 빠리미인의 대화

빠리사교계에서 제노라 뽐내는 요염한 젊은 귀족부인이 교태를 부리며 뚜르게네브(로씨야작가, 1818—1883)에게 물었다.

《뚜르게네브씨, 현대류행의 첨단에 서있는 빠리녀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뚜르게네브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는지… 짧게 지진 머리는 양털같고 퍼렇게 칠한 눈은 얻어맞아 멍이 진것 같으며 얼굴은 분을 너무 많이 발라 가루로 매닥질한

한 량반이란자가 트집을 걸었다.

《그대는 대관절 누군데 이 거룩한 신도비앞에서 오만상을 찡그리는거요?》

《오만상? 거참, 비슷하게 말했소. 이런 신도비를 세우느라 이처럼 아름다운 충주돌을 다 요정내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소. 누가 썼는지 씩씩한 필력에 기특한 문체가 아깝기 그지없구려.》

것 같으니…》

《뚜르게네브씨, 선생은 너무하군요. 빠리녀성을 그렇게 모욕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뚜르게네브는 그의 말을 들은척도 않고 계속하였다.

《입술에 새빨갛게 연지를 바른것은 뭐 같은지 아십니까?》

《?…》

《잰내비의 그것…》

《뭐라구요?》

《그만합시다. 하하하…》

부인은 울상이 되고말았다.

《뭐? 뭐라구? 이런 륙실할 놈 봤나.》

모두들 입에 게거품을 물고 미친듯이 고아댔다. 그러나 권필은 그런것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흔연히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씌여진 글이 참인지 거짓인가 하는것은 하늘이 저 돌을 만들어낼 때 입이 없었기망정이지 입이 있었더라면 아마 낱낱이 폭로했을거요. 하하하!》

거듭 들려오는 날카로운 조소에 얼이 나간 량반작자들은 불맞은 산돼지들처럼 길길이 날뛰였다.

《저놈에게 당장 오라를 지워라!》

《에익, 급살할 놈!》

그들이 노는 꼴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권필은 여유작작하게 길가에 나서서 걸음을 다그쳤다.

【야담】

수양매월이 기생이름인줄 알고

동 순 호

우리 나라에 먹산지가 한두곳이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해주에서 나는 수양매월먹을 제일로 친다.

한 재상이 황해감사로 있다가 교체되여 돌아왔다.

재상의 조카가 먹을 좀 달래러 갔다가 없다고 주지 않아 입이 부어가지고 돌아왔다.

후에 재상이 어데로 나간 짬에 조카가 가서 재상부인에게 넌지시 귀띔을 하였다.

《삼촌이 황해감사로 계실 때 두 기생에게 홀딱 빠졌답니다. 한 기생은 수양이라 하고 다른 기생은 매월이라 한답니다. 삼촌이 돌아올 때 정분을 잊지 못해 먹에다 두 기생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왔었는데 아직까지 삼촌어머니는 그걸 모르고계시지요? 제 말이 못미덥거든 가져온 그 먹을 보십시오.》

재상 부인이 그바람으로 당장 사랑방에 들어가 먹

궤짝을 열어보니 그안에 가득한것이 온통 수양매월이라는 글을 새긴 먹들뿐이였다.

부인은 분이 화끈 치밀어 먹궤짝을 닁큼 들어 마당에 나가 동댕이쳤다. 먹들이 좌르르 쏟아져 땅바

‖ 유 모 아 ‖

해학적인 강연

시인 마야꼽스끼가 한 모임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의 연설은 날카롭고도 해학적이여서 이따금씩 청중속에서 웃음소리와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한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도전적으로 소리쳤다.

《난 당신의 유모아를 알아듣지 못하겠소.》

마야꼽스끼는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은 기린이군요. 기린은 월요일에 발이 젖은것을 토요일에 감촉한다던데…》

이번에는 마야꼽스끼앞으로 종이쪽지가 날아들었다.

《마야꼽스끼씨, 당신은 왜 제 자랑을 좋아합니까?》

마야꼽스끼는 곧 그에 대답하였다.

《나의 한 친구가 권고하기를 <자네는 자신의 우점

닥에 한벌 쭉 깔렸다.

그러자 조카는 이때라고 소매안에 먹을 가득 넣어 가지고 가버렸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재상은 먹궤짝이 마당에서

에 대해서만 말하게. 결함은 친구들이 말하도록 하라구.>라고 하였지요.》

질문은 련달아 제기되였다.

《당신은 때가 앉은 낡은 전통과 관습을 씻어버려야 한다고 했지요? 그럼 매일 세수를 하는 당신도 결국은 어지러운 사람이라는 결론에 떨어지지요?》

《당신은 세수도 하지 않는 모양인데 그럼 당신은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야꼽스끼씨, 당신은 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닙니까?》

《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고 그럼 발가락에 끼라는겁니까?》

《마야꼽스끼씨, 당신은 오늘 저녁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건 당신이 흥미를 가질 일이 아니겠는데요. 당신은 돈을 한푼도 내지 않을것이고 나는 돈을 당신과 나누어가질 생각이 없으니까요.》

나딩구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부인이 새파래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게 못 잊어하는 기생이름이면 손바닥에 새겨넣을게지 왜 먹에다 새겼소?》

재상은 조카의 꾀임수에 넘어갔다는것을 알고 쓴웃음을 웃으며 부인을 타일렀다.

《해주에서 제일 높은 산은 수양산이고 그 산의 매화꽃과 달맞이가 유명하다는건 당신도 알지 않소. 그래서 옛날부터 해주먹을 그 이름을 따서 수양매월이라고 한다는걸 여태 몰랐소?》

부인은 그래도 믿지 않고 그냥 욕설을 퍼부었다. 재상은 얼리다 못해 두귀를 틀어막았다. 이 일이 전해져 한때의 웃음거리로 되였다.

【인물소개】

15세기의 재능있는 발명가 리천

리천(1376－1451)은 15세기의 유능한 군사지휘관인 동시에 재능있는 기술자, 발명가였다.

그는 1437년 평안도 도절제사로서 6천명의 원정군을 거느리고 건주위녀진족의 국경침범, 략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건너 그들의 소굴인 올라산성을 공격하여 격멸소탕했다. 특히 이 전투에서 자신이 발명한 반충력을 리용한 화약무기인 화포로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그리하여 몇해전에 그의 전임자였던 최윤덕이 1만 5천명의 병력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승리를 이룩하고 국경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

리천은 과학기술발전에서도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발명가로서 공조참판으로 있을 때 출판인쇄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

1420년에는 1403년에 주조된 활자인 《계미자》보다

작으면서도 정교하고 우수한 구리로 만든 《경자자》를 창안제작하여 서적출판사업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1434년에는 《경자자》를 다시 개량하여 20여만개나 되는 《갑인자》를 만들어 그해 9월부터 《동국통감》, 《국조보감》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인쇄하였다.

리천은 그후에도 탐구와 노력을 계속하여 1436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활자를 발명제작하였으며

유 모 아

《헤밍웨이씨, 넥타이를 사주십시오.》

미국의 소도시의 어느 한 백화점에서는 넥타이를 많이 팔았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 백화점에서 산 넥타이를 매고 다녔다.

백화점 지배인은 유명한 작가 헤밍웨이가 자기 상점의 고객으로 되여준다면 자기 상품이 더 인기를 끌것이라고 타산했다.

그래서 헤밍웨이에게 우편으로 넥타이를 하나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종래의 조판방법대신 자판에 활자를 세운 다음 그 사이에 대나무쪼각을 끼워 고정시켜 인쇄하는 현대적인 조판방법의 시원을 열어놓았다.

이처럼 리천은 고려시기에 처음으로 발명되였던 금속활자를 크게 발전시켜 세계최초의 연활자와 현대적조판기술의 원형을 창조했던것이다.

그는 또한 당시의 유명한 기술자였던 장영실 등과 함께 1443년 혼천의와 간의를 비롯한 천문관측기구

《우리 백화점에서 파는 넥타이는 누구나 즐겨 매고 다닙니다. 우리는 당신도 우리의 명예손님이 되시여 이 아름다운 넥타이를 받으시고 그 값으로 2딸라를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얼마후 그 백화점 지배인은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 그속에 있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다.

《내가 쓴 책은 누구나 즐겨 읽는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의 작품의 명예독자로 되시여 이 재미나는 소설책을 받으시고 그 값이 2딸라 80센트이므로 80센트를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헤밍웨이》

들과 자동물시계인 자격루와 앙부일구를 비롯한 해시계 등 시간측정기구들을 창안제작하는데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민족악기제작에서도 일정한 업적을 남기였다.

이와 같이 리천은 출판인쇄, 천문,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많은 과학기술적인 발명들을 하고 창안, 제작리용한 다재다능한 기술자, 발명가였으며 유능한 군사지휘관이였다.

편 지

편 집	정 성 남
장 정	김 영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6월 17일
발 행	주체109(2020)년 6월 20일

ㄱ-1475ㄷ